

# 내·외집단 규범정보가 외현 및 암묵적 편견에 미치는 통제적 영향: 성 편견과 지역 편견을 중심으로

안상수 · 김혜숙 · 안미영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성 편견(연구1)과 지역편견(연구2)에서 내·외집단 규범정보의 통제적 영향이 외현적 태도뿐만 아니라 암묵적 태도에도 작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1(N=160)과 2(N=118)에서, 피험자들은 집단(내집단/외집단)과 규범정보(평등/차별)가 조작된 웹 사이트의 게시판을 읽고, 각각 외현적 편견태도와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통한 암묵적 편견태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편견표현의 허용규범 지각과 규범적 태도지각의 매개과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집단과는 달리 내집단조건의 피험자들은 평등규범과 차별규범에 따라 성 평등 및 지역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암묵적 태도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중다회귀매개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집단의 규범정보는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매개과정을 거쳐 외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암묵적 편견태도에 있어서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의 매개효과는 지역편견에서만 나타났고, 성 편견에서는 그 경향성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의 의미와 성 편견 및 지역편견 해소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어:** 규범, 내외집단, 성편견, 지역편견, 적극적 조치, 인터넷, 암묵적 편견, 암묵적 연합검사

본 연구는 성 편견과 지역편견에 있어서 다수의 합의적 규범정보가 외현적 또는 암묵적 태도에 미치는 통제적 영향을 각각 알아보고, 이러한 통제적 영향의 매개요인으로서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과 규범적 태도지각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떤 사회라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위를 규제하는 나름대로의 합의적 규범이 있다. 한 사회가 가진 이러한 규범은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 가치, 신념들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집단규범이론(Sherif & Sherif, 1953)에 따르면 개인의 신념체계는 대부분 사회적 규범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편견적 태도 역시 다른 태도나 가치들과 마찬가지로 집단규범에의 동일시와 집단 구성원들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획득되고 유지된다 한다.

이러한 규범은 사회적 통제기제로 기능하여, 그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소수 집단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동기화 시키기도 한다.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소수

---

본 연구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연구지원(KRF-2002-074-HS1508)으로 이루어진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심리과정” 연구 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세 분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신저자: 김혜숙, (442-74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031)219-2770, hsk@ajou.ac.kr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통제하는 데 있어 탈 편견 지향적 사회규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 (Fishbein & Ajzen, 1975). 평등 지향적 규범의 중요성은 접촉 가설(Cook, 1984)에 대한 연구에서 집단 간 접촉이 편견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규범이 평등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Stephan과 Stephan(1984)은 소수집단에 대한 친구나 부모의 태도가 개인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럼에도 인종간 평등을 지향하는 규범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특정 지역,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탈 편견 지향적 규범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집단 내에서는 오히려 편견과 차별적 언행이 용인되는 규범으로 되어 진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공공연히 편견과 차별적 언행이 표출되고 있다.

편견적 태도를 통제하는 한 방법으로 규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Sechrist & Stangor, 2002; Stangor, Sechrist, & Jost, 2001). 편견과 고정관념이 집단규범의 결과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편견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규범지각 또한 중요한 사회적 정보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한 태도변화 역시 가능할 것이다. 최근 이들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타인의 신념에 관한 합의적 정보를 조작하여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지를 밝힌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Blanchard, Lilly & Vaughan, 1991; Blanchard, Crandall, Brigham, & Vaughan, 1994; Haslam, Oakes, McGarty, Turner, Reynolds, & Eggins, 1996; Crandall, Eshleman & O'Brien, 2002; Sechrist & Stangor, 2001; Stangor, Sechrist, & Jost, 2001). 이를 연구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표현이나 그와 관련된 정보가 한 개인의 신념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회적 영향에 관해서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동조실험이나 사회적 비교 실험(Asch, 1952; Festinger, 1954; Sherif, 1986)의 그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이 편견적 태도나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와 관련지어 연구된 것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Sechrist & Stangor, 2002).

Blanchard 등(1994)은 한 명의 백인 실험동조자가 흑인에 관한 5개의 설문에 대해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말하는 규범영향조건과 피험자가 공적, 사적으로 설문에 응답하는 상황을 조작하였다. 그 결과 우호적 규범 영향조건에서는 참여자의 인종차별적 태도표현이 현저히 감소되었던 반면에, 비우호적 규범영향조건에서 인종차별적 태도표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Wittenbrink와 Henly(1996)는 현대적 인종차별주의 척도를 통해 고-편견 피험자와 저-편견 피험자로 분류한 실험에서, 피험자로 하여금 흑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다고 믿게 하거나 혹은 적다고 믿게 조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현대적 인종차별주의 척도를 다시 실시한 결과, 저-편견 피험자들과는 달리 비율이 적다고 믿은 고-편견자는 흑인에 대해 호의적인 쪽으로 태도변화를 일으켰고, 그 비율이 많다고 믿은 고-편견자는 더 부정적인 쪽으로 태도를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tangor 등(2001)은 피험자가 가진 신념이 내집단과 다르다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도 인종 편견적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같은 대학의 동료 대학생들에 비해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적 신념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은 피험자들은 흑인에 대한 태도를 호의적인 쪽으로 변화시켰으며, 동료 대학생들에 비해 적은 고정관념을 가졌다는 피드백을 받은 피험자들은 부정적인 쪽으로 태도를 변화시켰다. 또 이러한 태도변화는 타 대학 학생에 관한 피드백보다 같은 대학의 학생들에 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더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1주일 후, 새로운 측정방법에 의한 재 측정

결과에서도 이 변화가 유지되었고(실험2), 설득적 시도에도 더 높은 저항을 보인다는 결과(실험3)를 얻었다.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타인에 관한 지각된 합의규범정보가 편견적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Blanchard 등(1994)이 밝혔듯이 이런 합의규범 정보는 공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적인 상황에서까지도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규범이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Wittenbrink 등(1996)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편견자들이 저-편견자들에 비해 사회적 규범에 더 민감한 지각자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Stanger 등(2001)의 연구의 경우, 자기 관련성이 높은 내집단(자기 대학)의 합의적 신념 정보가 자기 관련성이 낮은 집단(타 대학)의 정보보다 편견태도 변화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며, 단순한 응종 이상의 태도변화(Kelman, 1961)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내집단 규범의 영향이 외집단에 의한 규범정보나 전체 사회의 규범정보보다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한편 최근 105개 편견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규범 차원에서 광범위한 분석을 시도한 Crandall, Eshleman 및 O'Brien(2002)은 편견 및 고정관념의 정도는 그 사회의 규범이 편견 표현을 얼마나 허용한다고 믿는지에 달려 있으며, 규범적으로 그 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지각된 편견반응은 더욱 높게 나타나지만 규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된 편견반응은 낮게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 즉, 사회적 규범이 편견표현을 허용 하는가 금지하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규범이 편견반응을 통제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폴리치지법이나 유괴범에 대한 편견표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 허용하는데 비해 맹인이나 가정주부에 대한 편견표현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져 용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편견적 태도의 표현이나 생각에 대한 통제가 사회규범이 편견표현을 허용하는 정도에 대한 지각 즉,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에 달려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들 선행연구들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주요 관심사가 대두될 수 있다. 첫째, 내집단으로부터의 규범정보와 외집단으로부터의 평등규범 혹은 차별규범정보의 영향이 편견적 태도변화에 다르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태도변화가 규범에의 표면적인 단순한 응종의 결과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면화 수준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반영하는가? 그리고 셋째, 규범 정보가 편견표현을 허용하는 규범지각을 통하여 태도변화를 매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안상수와 김혜숙(2003)은 이런 주요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성 편견에서 사회적 규범정보가 외현적 편견 태도와 암묵적 편견태도(IAT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규범의 영향이 편견표현을 허용하는 규범지각의 변화의 매개과정을 거쳐 태도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규범(평등규범/차별규범)과 집단(내집단/외집단)을 조작한 후 이를 접한 피험자들의 외현적 성 편견태도와 암묵적 성편견 태도를 측정하였다. 규범조작에 따른 편견적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통제집단의 편견 점수를 뺀 차이값을 통하여 각 조건별 태도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외집단과 달리 내집단-평등규범조건(내집단 사람들이 성 평등 지향적인 태도를 표명하는 상황을 접한 조건)의 피험자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더 호의적인 쪽으로 외현적 성 편견태도와 암묵적 성 편견태도를 나타낸 반면, 내집단-차별규범조건(내집단 사람들이 성차별 지향적인 태도를 표명하는 상황을 접한 조건)의 피험자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비호의적 쪽으로 외현 및 암묵적 성편견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외집단에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 조건에서는 이러한 통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규범정보의 영향이 내집단과 외집단에서 다르며, 내집단 조건에서만 규범의 통제적 효과가 더 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안상수와 김혜숙

(2003)의 연구에서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외현적 편견태도뿐만 아니라 암묵적 편견태도에서까지 나타났다는 것은 Blanchard 등(1994)과 Stangor(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응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외현적 편견태도뿐만 아니라 암묵적 편견태도에도 나타난다는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결과는 규범에 의한 통제가 주로 편견의 표현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의식적 통제적 처리과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자동적 처리과정에서의 편견반응은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Devine(1989)의 주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동적 과정은 의식적 통제의 영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에 의한 암묵적 자동반응의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고정관념과 편견의 자동활성화 과정이 외현적 측정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적 요구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Devine, 2001; Lowery, Hardin, & Sinclair, 2001), 이러한 고정관념의 활성화 효과가 고정관념 부인(negation)훈련을 통해 통제될 수 있으며(Kwakami, Dovidio, Moll, Hermsen, & Russin, 2000), 자동적 처리 조건에서 고정관념 일치를 기대한 피험자는 고정관념 활성화를 나타냈지만 고정관념 불일치를 기대한 피험자는 활성화를 억제시킬 수도 있다(Blair & Banaji, 1996)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외현적 편견뿐만 아니라 자동적 처리 과정인 암묵적 편견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상수와 김혜숙(2003)에서 다루었던 성 편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지역편견에 있어서도 내·외집단 규범정보의 통제적 영향이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뿐만 아니라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에도 작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는 규범정보와 태도변화간의 매개변인으로서 Crandall 등(2002)이 주장한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을 검토한 결과 외현적 성 편견태도에서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얻었으나, 암묵적 성 편견태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설명으로서 규범에 관한 기존 연구들(예컨대, 나은영, 1995; Stangor et al., 2001)은 실험자가 특정 집단의 합의적 태도나 신념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규범상황을 조작한 데 비해서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내·외집단 성원들 다수가 평등적 혹은 차별적 표명을 하는 상황을 접한 피험자가 합의적 규범을 직접 파악하는 조작 절차상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규범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실험자가 어떤 집단의 합의적 태도 규범이 평등적인지 차별적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규범 자체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그 집단에 대한 피험자의 ‘규범적 태도 지각’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와 같이 편견표현을 조작하고 피험자가 이를 직접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는 Crandall 등(2002)의 주장처럼 “특정 집단 내에서 편견표현이 얼마나 용인되는지 혹은 금지되는지” 여부에 따른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변화를 가져왔을 수도 있지만, 규범자체를 조작한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합의적 태도 자체가 평등적인지 차별적인지”에 대한 규범적 태도 지각도 함께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실제적인 편견 표현을 조작한 상황에서는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뿐만 아니라 집단의 합의적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규범적 태도 지각’의 변화를 가져와 편견태도가 달라졌을 수 있음에도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각각의 영향을 따로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과 ‘규범적 태도 지각’을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규범정보와 외현 및 암묵적 편견태도 변화간의 매개과정을 재검토해 보고자 하였으며, 외현적 편견태도와 암묵적 편견태도의 변화에서 이들 매개변인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적 중요성이 어떻

게 다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범의 통제적 영향에 대해 앞서 제기된 3가지 주요 관심사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겠지만 좀 더 현실성 있는 이슈들과 연관지으려는 목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험자가 규범정보를 제시하는 인위적 통제 상황을 벗어나 특정 집단의 합의적 규범정보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인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의 규범의 통제적 기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남녀문제나 지역문제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예컨대 여성 채용목표제,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제도 폐지)와 지역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예컨대, 본적지 기입제도 폐지, 호남지역의 개발 소외, 인사 불평등 해소, 고위공직에 대한 지역배려, 공무원 지역할당제 도입 등)의 문제를 주요 소재로 삼았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차별주의가 비편견적인 자기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편견이 표현될 가능성이 높고(McConahay, 1986), 희극적이며(Gaertner & Dovidio), 소수집단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에 반대나 보수성을 띠는 상징적인 표현(Sears, 1988)의 형태로 대체되는 경향을 본 연구에 반영하려는 취지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Greenwald, McGhee 및 Schwarz(1998)가 제안한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이용하여 암묵적 성 편견태도와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를 측정할 것이지만, 종속 측정치로서 내적 일관성을 좀더 향상시킬 목적으로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와는 달리 반응시간 측정의 안정성을 고려한 새로운 프로그램(Incisit 1.33)을 도입하였고, Greenwald 등(2003)이 제안한 개선된 계산 규칙을 적용하여 'IAT 효과' 점수를 구하였다. 암묵적 사회인지이론(Greenwald & Banaji; 1995)을 근간으로 하여 개발된 간접적 태도측정 방법으로서 암묵적 연합검사는 지금까지 편견연구 분야에서 진정한 편견의 정도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은영 · 권준모, 2002; 홍영오 · 이훈구, 2001; Greenwald, Banaji, Rudman, Farnham, Nosek, & Mellott, 2002; Nosek, Banaji & Greenwald, 2002).

종합하면, 본 연구1에서는 성 편견을 중심으로 그리고 연구2에서는 우리나라 영남인의 호남 지역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 보기 위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과 '규범적 태도지각'을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이들 매개변인이 규범정보와 외현 및 암묵적 편견태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주요 관심사로 하여, 사회적 규범의 통제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여 다수의 내 · 외집단 성원들이 평등 지향적 표현을 하거나 차별 지향적 편견표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조작하여 이러한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외현적 편견태도(적극적 조치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지, 이것이 자동적 암묵적 편견반응인 'IAT효과'까지도 변화시키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 보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의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더 낮은 외현적 편견태도(지역 및 성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의 효과는 외집단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더 낮은 암묵적 편견반응(성편견 IAT 효과, 지역편견 IAT 효과)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의 효과는 외집단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연구 1: 성 편견에 대한 규범정보의 통제적 영향

실험 1의 목적은 먼저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를 반복 검증하고 이를 통해서 내·외집단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편견표현 허용규범의 지각에 따른 결과인지 규범적 태도지각에 따른 결과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전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암묵적 연상검사(IAT) 실시 프로그램 보다 좀더 개선된 절차와 계산 방법(Greenwald et al., 2003)을 사용하여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암묵적 수준에까지 미치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 방법

이 실험의 방법과 절차는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방법과 절차를 대부분 따랐으며, 여기서는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피험자

이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들로 모두 160명이었고, 실험약속시간표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는 형식으로 10개 조건에 무선할당 되었다. 피험자의 성별분포는 남자 77명 여자 83명이었다. 피험자들은 실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수업과제의 일부를 면제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30명은 통제집단으로 남자 15명 여자 15명이었다.

#### 실험설계

10개 조건 중 2개 조건(남녀 각 1조건)은 독립변인의 처치 없이 지필 종속측정치와 IAT 과제만을 측정하는 통제집단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조건은 2(집단: 내집단/외집단) × 2(규범정보: 평등/차별) × 2(피험자의 성: 남/여)의 완전무선설계로 독립변인의 처치가 이루지는 실험집단이었다.

#### 독립변인

독립변인의 조작은 실험을 위해 제작된 웹 사이트인 <http://won172.bsys.net>의 게시판 A를 이용하였다. 실험 참여자가 보게될 게시판에 게시된 글 내용과 제목 그리고 설명의 이름을 이용하여 내/외집단과 평등/차별의 규범정보를 조작하였다.

**내·외집단의 조작** : 내·외집단 조작은 설명을 사용한 게시판에서 남성과 여성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내집단 조작은 피험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6명의 사람들 중 다수(5명, 83%)가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고 소수(1명, 17%)가 불일치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반면 외집단 조작은 피험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들의 다수(5명, 83%)가 자신의 성별과 불일치하고 소수(1명, 17%)가 일치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규범정보의 조작** : 규범정보는 평등규범 조건과 차별규범 조건으로 하였다. 규범정보의 조작은 피험자가 읽게 될 게시판에 올려진 글 내용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평등규범 조건은 게시판에 올려 진 6개의 글 내용 중 다수(5개, 83%)가 여성채용목표제, 정치인 및 교수의 여성비율할당제, 호주제 폐지, 군복무 남성에 대한

군 가산점제도 폐지 등에 찬성 태도를 표명하고 소수(1개, 83%)는 이러한 제도를 반대하는 내용인 경우이다. 차별규범 조건은 6개의 글 내용 중 다수(5개, 83%)가 여성채용목표제 등의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에 반대 태도를 표명하고 소수(1개, 17%)가 이러한 조치들에 반대하는 내용인 경우이다.

**통제집단.** 통제집단은 웹 사이트의 게시판을 읽고 종속측정치에 응답하는 실험집단과 달리 지필로 구성된 외현적 태도 질문지와 IAT과제만을 실시하는 조건이다.

### 종속변인

종속측정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외현적 태도로서 게시판 하단에 링크시켜 둔 '질문지 작성' 버튼을 눌러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암묵적 태도로서 암묵적 연합검사 실시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IAT 효과(Greenwald et al., 1998)'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의 내·외집단 및 규범정보의 처리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험집단에서 얻는 외현적 태도 점수와 IAT 효과 점수를 통제집단에서 얻은 외현적 태도와 IAT 효과 점수를 각각 뺀 차이값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외현적 태도.** 외현적 태도는 질문지 형식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에 대해 묻는 3개 문항의 태도 측정치로써 “귀하는 여성고용비율할당제 도입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귀하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귀하는 군 가산점제도 폐지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를 ‘①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에서 ‘⑤ 매우 찬성한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매개변인.** 매개변인은 규범정보와 외현 및 암묵적 성 편견태도 사이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두 개의 매개변인, 즉 편견표현 허용규범의 지각과 규범적 태도의 지각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편견표현 허용규범의 지각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적 표현이 얼마나 용인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는 질문들로써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발언하는 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을 욕하거나 우스개 거리로 삼는 일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여성 편견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발언을 한다.”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⑤ 매우 그렇다’에 대해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둘째, 성 편견에 관한 규범적 태도의 지각은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 가진 편견정도를 어느 정도로 지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에 대해 가지는 편견의 정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를 ‘① 전혀 편견적이지 않는 것 같다’에서 ‘⑤ 매우 편견적인 것 같다’에 대해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조작확인.** 조작확인을 위한 문항은 게시판을 통한 내·외집단 및 규범정보의 조작이 이루어 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이었다. 내·외집단 조작확인은 남성이 쓴 글의 수가 몇 개였는지, 여성이 쓴 글의 수가 몇 개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규범정보의 조작 확인을 위해서 남성지지 글의 수가 몇 개였는지, 여성지지 글의 수가 몇 개였는지를 물었다.

**암묵적 태도.** 암묵적 태도는 여기서 암묵적 연합검사 실시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측정치를 말한다. 이 측정치는 자동적 연합강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써 흔히 'IAT 효과' 혹은 'IAT 점수'라고도 한다. 'IAT 효과'는 두 개의 범주가 조합된 변별과제에서의 수행속도 차이로 계산된다. 즉,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비상응과제(incompatible task)에서 상응과제(compatible task)의 반응시간을 뺀 차이값을 의미한다. IAT 효과의 점

수가 클수록 특정 범주와 부정적 특성이 더 잘 연합되었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특정 대상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다거나 또는 높은 편견을 가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다. Rudman, Greenwald, 및 McGhee(1996)에 따르면 이러한 가정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고 'IAT 효과'는 성 편견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IAT 효과' 점수를 구하기 위해 이전 연구와 달리 Greenwald 등(2003)이 제안한 개선된 'IAT 효과'의 계산 규칙을 도입하였다. 전통적인 IAT 효과점수의 계산규칙은 300ms 이하 3000ms 이상의 극단 값을 이들 기준 값으로 대체하고, 오반응이 10% 이상인 피험자와 오반응을 보인 시행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각 피험자별 반응시간을 로그값으로 변환시켜 비상응과제의 검사 블록(block)에서 상응과제의 검사 블록의 평균 차이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다(Greenwald et al., 1998).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속도-정확성의 교환(tradeoff) 문제, 연령 증가에 따른 반응속도의 저하, 극단 값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인지심리학 분야에서 반응시간에 대한 좀더 개선된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Greenwald 등(2003)은 외현적 태도와 상관이 높고, 이미 알려진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들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 내적 일관성의 유지 및 조합과제의 순서효과와 사전경험의 효과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된 IAT 계산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편견태도의 측정치료서 IAT 효과를 다음과 같은 개선된 규칙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① 블록 3, 4, 6, 7의 자료를 원자료로 삼았다(표1 참조). ② 반응시간이 10000ms 이상인 반응은 제거하고, 300ms 이하의 반응시간이 10% 이상인 피험자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③ 각 블록의 정확반응의 평균시간을 계산한다. ④ 블록 3과 6의 전체 시행에 대한 표준편차( $SD$ )를 계산한다. 마찬가지로 블록 4, 7의 전체 시행에 대한 표준편차를 계산한다. ⑤ 오반응 시행의 반응시간은 각 블록의 정확반응 평균시간에 600ms의 패널티 시간을 더해 준다. 즉 오반응은 <해당 블록의 정확반응 평균시간 + 600ms>으로 대치한다. ⑥ 네 개 각 블록의 평균을 구한다. ⑦ 연습과제 블록 6-3의 평균차이와 검사과제 블록 7-4의 평균차이를 각각 계산한다. ⑧ 7단계에서 얻은 평균차이를 4단계에서 얻은 표준편차로 각각 나눈  $D_1$ 과  $D_2$  값을 얻는다. ⑨  $D_1$ 과  $D_2$ 를 평균 즉,  $(D_1 + D_2) / 2$  하여 최종적으로 피험자별 'IAT 효과' 점수로서  $D$  값을 구하였다. 이와 같은 순서로 얻은 IAT 효과 점수를  $D$  값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연습과제 블록과 검사과제 블록에서 얻은 평균차이를 해당 블록의 표준편차로 각기 나눈 값을 다시 평균해서 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표준편차로 평균차이를 나누는 것은 Cohen(1977)의 잘 알려진 효과의 크기 측정치인  $d$  와 흡사하며, 이와 구별하기 위해 대문자  $D$ 를 사용하였다(Greenwald et al., 2003; Nosek, Banaji & Greenwald, 2002).

## 실험도구

본 실험은 독립변인의 조작과 외현적 태도 및 암묵적 태도의 측정에 이르기까지 실험의 전 과정이 컴퓨터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컴퓨터는 모두 Intel Pentium IV 1.8 GHz 이상의 CPU를 장착한 개인용 컴퓨터들이었으며, 15인치 컬러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었다.

독립변인의 조작은 실험목적으로 제작된 웹 사이트인 <http://won172.byus.net>의 게시판을 이용하였다. 이 홈페이지의 게시판 구성은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웹 사이트와 유사하다. 그리고 외현적 태도의 측정은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가 지필 형식의 질문지를 통해 외현적 태도를 측정하였던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웹 사이트 상에서 피험자가 직접 '질문지작성' 버튼을 눌러 응답하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IAT 실시 프로그램은 Millisecond Software 사의 Inquisit 1.33 asian version[Computer software, 2003]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Inquisit 1.33은 Windows 환경에서도 반응시간 측정의 불안정성을 최소화되도록 고안되었으며 한글자극과 같이 바이트(byte) 수를 많이 차지하는 텍스트 자극뿐만 아니라 음성 및 그래픽 자극 등을 이용한 IAT 과제나 점화과제(priming task)를 쉽게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반응시간이나 정확성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과 계산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다 (<http://www.millisecond.com>에서 2004. 10. 21. 인출).

### 실험절차

피험자들은 6~17 명씩 집단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40 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는 컴퓨터 실습실에서 이루어 졌다. 각 컴퓨터는 고유번호가 붙여져 있었고, 피험자는 실험용 웹 사이트인 <http://won172.byus.net>가 미리 켜져 있는 지정된 컴퓨터 앞에 앉는다. 첫 화면에는 '실험용 홈페이지'라는 설명과 함께,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A'형과 'B'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참고로 여기서 'A'형은 연구1을 위한 것이었고, 'B'형은 연구2를 위한 것이었다.

피험자들이 A형을 선택하면 흰색 바탕화면에 1번에서 6번까지 게시판 번호와 영문약자로 표시된 하이퍼텍스트 형식의 링크가 화면 중앙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 게시판들은 내·외집단과 규범정보를 조작하기 위해 게시자의 성과 글 내용을 조건별로 달리한 것들이었다. 예컨대 ME(게시판3)를 클릭(click) 하면 6개의 글 제목과 설명으로 된 목록을 볼 수 있는데, 이 목록에는 글을 올린 사람의 다수가 남성이고, 또한 여성평등정책을 지지하거나 여성 평등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이 다수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MU(게시판4)는 글을 올린 사람의 다수가 남성이지만 여성평등정책을 반대하거나 여성 차별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WE(게시판5)는 글을 올린 사람의 다수가 여성이고, 여성 평등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이 다수인 경우이며, WU(게시판6)는 글을 올린 사람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여성 차별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이 다수였다.

남녀 피험자들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게시판에 포함된 글 목록과 내용을 차례대로 읽고 목록 하단에 위치한 '질문지 작성' 버튼을 눌러 인터넷 사용경험, 게시판 운영에 관한 의견을 비롯한 게시판 글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함께 외현적 태도의 종속측정치들에 응답하였다.

게시판을 이용한 독립변인의 조작과 질문지 작성은 통한 외현적 태도의 측정이 끝나면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과 관련된 실험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화면상의 Web Browser를 종료할 것을 지시하였다.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IAT 과제는 피험자들에게 별개의 다른 실험인 듯이 꾸미기 위해 새로운 실험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자는 "조금 전 끝난 실험과는 다른 실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의 단어인식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실험이므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앞서 실험과 마찬가지로 실험자의 지시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컴퓨터의 바탕화면의 IAT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IAT 실행프로그램이 작동되면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자신의 학번을 입력하게 한 후 "이 실험은 반응속도와 정확성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앉는 자

세에서도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르게 앉는 자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밀하였다. 그리고 실험자는 피험자들의 시선이 화면 중앙에 놓일 수 있도록 의자를 고쳐 앉게 도와주고 화면과의 거리를 약 65cm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의 지시문을 천천히 읽어보고 화면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따라 IAT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IAT 실행 프로그램은 7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고, 모두 236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IAT 실행 프로그램의 진행순서와 각 블록별 항목과 반응키 배정은 표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IAT 과제의 진행순서와 항목과 반응키 배열

시행	목적	항목-왼쪽 키(Z)	항목-오른쪽 키(?)
1 24	표적변별	여성이름	남성이름
2 24	특성변별	불쾌단어	유쾌단어
3 24	연습(상응)	여성이름 불쾌단어	남성이름 +유쾌단어
4 40	검사(상응)	여성이름 불쾌단어	남성이름 +유쾌단어
5 24	표적 역변별	남성이름	여성이름
6 36	연습(비상응)	남성이름 불쾌단어	여성이름 +유쾌단어
7 40	검사(비상응)	남성이름 불쾌단어	여성이름 +유쾌단어

6단계의 연습블록(36 시행)이 3단계의 연습블록(24 시행)보다 시행 수가 많은 이유는 초기 시행의 반응 우세성을 상쇄시킬 목적에서였으며, IAT 과제의 전체 진행순서는 피험자별로 역균형화(counterbalancing)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표적 범주어(남성이름 10개, 여성이름 10개)와 특성 범주어(유쾌단어; 햇살, 소풍, 해돋이, 등 10개 단어, 불쾌단어; 저주, 타락한, 배신 등 10개 단어)는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와 달리 각 블록별 첫 시행에서는 반응시간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비시행을 두었고, 이것은 본 시행과 구분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지만 따로 기록되었고 분석에서도 제외되었다. 또한 변별시행에서 오반응이 있을 경우 자극단어 아래에 ‘X’표시가 나타나고 정확한 반응을 다시 선택하면 다음 시행으로 넘어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반응은 오반응으로 기록됨은 물론 반응시간도 기록되도록 하였다.

## 결과 및 논의

실험결과는 외현적 편견태도와 암묵적 편견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외집단에서의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외현적 태도뿐만 아니라 자동적 암묵적 태도에까지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주관심사이다. 따라서 조작확인 분석 이후, 분석자료로 사용한 종속측정치들은 실험집단의 개인별 평균값에서 통제집단의 평균값을 뺀 차이값을 모든 분석의 원자료로 삼았다. 이 점수들은 실험의 처리효과에 따른 차이로 간주하였다.

### 조작확인 분석

우선 규범정보가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게시판에서 읽은 글 중에 ‘여성을 지지하는 글의 수’가 몇 개인지를 묻는 질문과 ‘남성을 지지하는 글의 수’가 몇 개인지를 묻는 질문을 하였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동일한 내용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물은 것이므로 게시판의 6개의 글 중에 ‘여성을 지지한 글의 수’에 대한 응답은 ‘남성을 지지하는 글의 수’에 관한 응답을 결정한다. 즉 평등규범조건에서는 여성을 지지하는 글의 수가 많았다고 판단해야하고 반대로 남성을 지지하는 글의 수가 적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한편 차별규범조건에서는 남성을 지지하는 글의 수가 많았다고 판단하고, 여성을 지지하는 글의 비율이 적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는 여성지지 글의 수에 대한 판단만을 분석하였다. ‘여성을 지지하는 글의 수’에 대한 판단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2(집단: 내집단, 외집단)  $\times$  2(규범정보: 평등규범, 차별규범)  $\times$  2(피험자 성: 남성, 여성)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에 따른 조건별 피험자들이 지각한 ‘여성을 지지하는 글의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2와 같다.

표 2. 규범정보, 집단, 성의 조건별 지각된 ‘여성지지 글의 수’의 평균(표준편차)

피험자 성	집단 유형			
	내집단		외집단	
	평등	차별	평등	차별
남성	4.53(.99) n=15	1.40(.63) n=15	4.71(.77) n=17	1.93(.46) n=17
여성	4.41(.71) n=17	1.94(.90) n=17	4.06(1.09) n=17	1.41(.62) n=15
전체	4.47(.84) n=32	1.69(.82) n=32	4.38(.99) n=34	1.66(.60) n=32

변량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122) = 385.09, p < .001$ . 즉, 평등규범조건에서 차별규범조건에 비해 여성지지 글의 수를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험자들에게 평등규범과 차별규범의 조작이 유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과 성간에 상호작용도 유의미하게 나왔다.  $F(1, 122) = 7.99, p < .01$ . 이는 남성피험자와 여성피험자 모두 여성이 올린 글이 다수 인 게시판을 읽을 경우 여성지지 글의 수를 더 많이 판단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내·외집단 조작확인을 위해 피험자들에게 여성이 쓴 글의 수와 남성이 쓴 글의 수를 판단하게 하는 질문을 하였다. 즉, 내집단과 외집단의 조작은 게시판의 글을 올린 사람의 디수가 피험자 자신과 같은 성이면 내집단이고 자신과 다른 성이면 외집단으로 조작하였다. 여성이 쓴 글의 수에 대한 판단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2(집단: 내집단, 외집단)  $\times$  2(규범정보: 평등규범, 차별규범)  $\times$  2(피험자 성: 남성, 여성)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에 따른 조건별 피험자들이 지각한 ‘여성이 쓴 글의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3과 같다.

표 3. 규범정보, 집단, 성의 조건별 지각된 ‘여성이 쓴 글의 수’의 평균(표준편차)

피험자 성	집단유형			
	내집단		외집단	
	평등	차별	평등	차별
남성	2.13(1.30)	1.53(.74)	4.71(.47)	3.73(1.44)
여성	4.53(.72)	4.06(.93)	2.35(.93)	1.53(.80)
전체	3.41(1.58)	2.88(1.56)	3.53(1.40)	2.56(1.59)

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22) = 17.92, p < .001$ . 즉 평등규범조건의 피험자들은 여성이 쓴 글의 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한 반면에 차별규범조건의 피험자들은 여성이 쓴 글의 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내·외집단 조작확인의 주관심사라 할 수 있는 집단(내집단/외집단)과 피험자의 성(남/녀)간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22) = 195.91, p < .001$ . 집단과 성간의 상호작용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피험자의 경우 내집단조건은 평균 1.83( $SD = 1.09$ ), 외집단조건은 평균 4.25( $SD = 1.14$ )개로 판단하였고, 여성 피험자의 경우 내집단조건은 평균 4.29( $SD = .91$ ), 외집단조건은 평균 1.94( $SD = .95$ )개로 판단하였으며 그 차이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규범정보의 주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외집단 조작이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조작확인 문항이 단순히 ‘지지 글의 수’나 ‘글을 쓴 사람의 수’를 판단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조작확인이 불충분하였을 가능성이 시사됨에 따라 규범정보와 내·외집단 조작이 실제 편견표현 허용규범이나 규범적 태도지각의 변화를 가져 왔는지 알아보기 위한 보충 분석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별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과 규범적 태도 지각 점수에서 통제집단의 평균값을 뺀 차이값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2(집단: 내집단, 외집단)  $\times$  2(규범정보: 평등규범, 차별규범)  $\times$  2(피험자 성: 남성, 여성)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규범정보, 집단, 성의 조건별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 차이값의 평균(표준편차)

참여자 성	집단유형			
	내집단		외집단	
	평등	차별	평등	차별
남성	-.27(.50)	.21(.43)	-.18(.51)	-.25(.30)
여성	-.10(.65)	.13(.41)	.03(.29)	.06(.42)
전체	-.18(.58)	.17(.42)	-.07(.42)	-.09(.40)

먼저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 변화량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와 표4에 따르면 규범정보 유형에서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122) = 4.47, p < .05$ . 그리고 성(남성/여성)에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유의 경향성은 보였다,  $F(1, 122) = 3.58, p < .10$ . 또한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와 집단(내/외집단)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122) = 5.72, p < .05$ . 주효과가 나타난 규범정보를 좀더 살펴보면 평등규범조건의 평균이  $-.13(SD = .50)$ 이었으며, 차별규범조건의 평균이  $.04(SD = .42)$ 로 평등규범조건에서 편견표현이 덜 허용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리고 규범정보와 집단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분석을 통해 보

면 내집단 조건에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차이가 유의미 하였다,  $F(1, 122) = 10.15, p < .01$ . 즉 내집단-평등규범조건에서 편견표현 허용규범의 지각변화량이 평균  $-.18 (SD = .58)$ 이었고, 내집단-차별규범조건에서는 평균  $.17 (SD = .42)$ 이었다. 이 결과는 내집단의 평등규범을 접한 피험자들의 경우 편견표현이 덜 허용적인 규범으로 지각하였던 반면에 내집단 차별규범을 접한 피험자들의 경우 편견표현이 더 허용적인 것으로 지각하였음을 의미한다. 또 차별규범조건의 경우 내·외집단간의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의 변화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1, 122) = 5.74, p < .05$ . 이를 좀더 살펴보면 차별규범 상황에서 내집단 조건의 피험자들은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변화량이 평균  $.17 (SD = .42)$ 이었는데 비해서 외집단 조건의 피험자들은 변화량이 평균  $-.10 (SD = .41)$ 이었다. 이는 피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와 일치하는 내집단의 차별적인 표현이나 발언을 허용하는 규범에 더 큰 영향을 받았고, 외집단의 편견표현 허용 규범에 대해서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거나 오히려 이에 저항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규범조건에서 내·외집단간의 차이 및 외집단조건에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규범적 태도 지각의 변화량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규범정보 유형에서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F(1, 122) = 5.67, p < .05$ ,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과 집단(내/외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 경향성을 보였다,  $F(1, 122) = 3.61, p < .10$ . 유의하게 나타난 규범정보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평등규범조건피험자들은 여성에 대한 평등이 규범적인 태도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M = -.07, SD = .54$ ), 차별규범조건의 피험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규범적인 태도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M = .15, SD = .47$ ). 지금까지 ‘글의 수’에 대한 조작화인 분석결과와 보충적 분석결과 두 개의 독립변인인 규범정보와 내·외집단의 조작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종속변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편견점수의 차이

여성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종속 측정치로 군가산점제도 폐지, 여성비율할당제도 도입 호주제 폐지에 대한 3문항의 신뢰도(Cronbach  $\alpha$ )가 .63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문항에 대한 찬성정도를 피험자별로 평균하였다. 5점 척도에서 이 평균값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조건별 편견적 태도의 차이점수를 얻기 위해 남녀 통제집단의 태도 점수를 먼저 구하였다. 남녀 통제집단에 대해서 얻은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았다.

표 5. 통제집단의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 평균과 표준편차

피험자의 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남성	2.69	.91	15
여성	3.76	.51	15
전체	3.22	.91	30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 통제집단의 남성과 여성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피험자의 성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28) = -3.95, p < .001$ . 즉, 남성은 평균  $2.69 (SD = .91)$ 이고

여성은 평균이 3.76( $SD = .51$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 유의미하게 더 편견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실험집단의 피험자들로부터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개인별 편견태도 점수를 구한 다음, 통제집단의 평균을 뺀 차이값을 분석의 원자료로 삼았다. 이 차이값을 이용하여 2(규범정보: 평등규범, 차별규범)  $\times$  2(집단: 내집단, 외집단)  $\times$  2(피험자 성: 남성, 여성)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에 따른 조건별 편견태도 차이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6과 같다.

표 6. 규범정보, 집단, 성의 조건별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편견태도 변화량의 평균(표준편차)

피험자 성	집단유형			
	내집단		외집단	
	평등	차별	평등	차별
남성	.14(.55)	-.24(.47)	-.17(.54)	.09(.61)
	<i>n</i> =15	<i>n</i> =15	<i>n</i> =17	<i>n</i> =17
여성	.15(.56)	-.13(.50)	.12(.55)	.16(.40)
	<i>n</i> =17	<i>n</i> =17	<i>n</i> =17	<i>n</i> =15
전체	.14(.55)	-.18(.48)	-.03(.56)	.13(.50)
	<i>n</i> =32	<i>n</i> =32	<i>n</i> =34	<i>n</i> =32

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규범정보의 주효과,  $F(1, 122) = .83, ns$ , 집단(내/외집단)의 주효과,  $F(1, 122) = .60, ns$ , 피험자 성의 주효과  $F(1, 122) = 1.77, ns$  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와 집단(내집단/외집단)간의 상호작용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22) = 6.90, p < .01$ .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규범정보와 집단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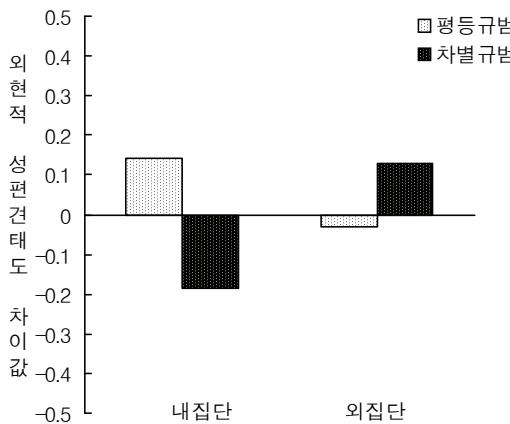


그림 1. 규범정보와 집단에 따른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 대한 외현적 성 편견태도 변화량

이를 좀더 살펴보면 내집단조건에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1, 122) = 6.26$ ,  $p < .05$ . 즉, 내집단조건의 경우 평등규범 상황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 차이값이 평균 .14( $SD = .55$ )였고, 차별규범상황에서는 평균 -.19( $SD = .48$ )로 나타났다. 그림1에서 좌표  $y=0$ 을 통제집단이라고 하였을 때 내집단의 평등규범조건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 차이값이 0보다 큰 값, 즉 호의적인 쪽으로의 변화를 보여 통제집단에 비해 편견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내집단의 차별규범 상황에서는 0보다 작은 값, 즉 비호의적인 쪽으로의 변화를 나타내 통제집단에 비해 편견이 오히려 촉진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외집단의 경우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122) = 1.46$ , ns.

이 결과를 통해서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내집단조건에서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외집단 조건에서는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집단조건의 경우 평등규범 상황에서는 편견을 억제시키는 쪽으로 통제적 영향이 작용하고 차별규범 상황에서는 편견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결과들은 본 연구의 가설1 즉,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의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 이는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외집단보다는 내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고, 내집단의 평등규범이나 차별규범 정보에 따라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외현적 편견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결과를 다시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 여성에 대한 암묵적 성 편견태도(IAT 효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초자료는 피험자 당 140개의 반응시간을 토대로 하였다. 이미 연구 방법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암묵적 성 편견태도에 관한 종속측정치는 Greenwald 등(2003)<sup>10</sup>이 제안 ‘IAT 효과’의 개선

된 계산규칙을 적용하여 구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피험자별 IAT 효과 점수인  $D$  값을 통제집단의 남녀 별 평균  $D$  값으로 뺀 차이값을 분석자료로 삼았다.

**통제집단의 IAT 효과.** 우선 남녀 각 15명으로 이루어진 통제집단에 대한 자료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여기서 비상응과제의 평균반응시간에서 상응과제의 평균반응시간을 뺀 차이값을 각 블록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얻어진 개인별  $D$  값을 개인별 ‘암묵적 성 편견태도 점수’로 보았다. 표7은  $D$ 값으로 환산된 IAT 효과 점수의 남녀별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여기서 평균점수가 클수록 성편견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7. 남녀 통제집단의 IAT 효과 평균과 표준편차( $D$ -점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남성	.30	.39	15
여성	-.78	.28	15
전체	-.24	.65	30

남성통제집단과 여성통제집단간의 IAT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남녀 통제집단간의 IAT 효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8) = 8.68, p < .001$ . 즉 남성 통제집단이 평균 .30( $SD = .39$ )이었고, 여성 통제집단이 평균  $-.78$ ( $SD = .28$ )이었다. 이 결과는 남성 통제집단이 여성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IAT 효과’ 점수를 나타내 남성 통제집단이 암묵적 성 편견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집단의 암묵적 성 편견태도 변화량 분석.** 먼저 실험집단의 IAT 효과인 피험자별  $D$ 점수에서 통제집단의 평균  $D$  점수를 뺀 차이값으로써 이것을 암묵적 편견태도 변화량으로 삼았다. 암묵적 편견태도 차이값에 대한 분석에서 0보다 큰 점수는 통제집단에 비해서 편견이 촉진되었음을 의미하고 0보다 작은 점수는 편견이 억제되었음을 의미한다.

암묵적 편견태도 차이값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규범정보: 평등규범, 차별규범)  $\times$  2(집단: 내집단, 외집단)  $\times$  2(피험자의 성: 남성, 여성)의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암묵적 성 편견태도 차이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집단 유형별로 제시해 보면 표8과 같다.

표 8. 집단, 규범정보, 성의 조건별 암묵적 성 편견태도 변화량의 평균(표준편차)

피험자 성	집단유형			
	내집단		외집단	
	평등	차별	평등	차별
남성	-.24(.54) <i>n</i> =15	.20(.48) <i>n</i> =15	.11(.37) <i>n</i> =17	.10(.43) <i>n</i> =17
여성	-.09(.37) <i>n</i> =17	-.04(.45) <i>n</i> =17	.20(.39) <i>n</i> =17	-.06(.41) <i>n</i> =15
전체	-.16(.45) <i>n</i> =32	.07(.47) <i>n</i> =32	.15(.38) <i>n</i> =34	.01(.42) <i>n</i> =32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와 집단(내집단/외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으며,  $F(1, 122) = 6.36, p < .05$ , 또한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와 성(남성/여성)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122) = 4.39, p < .05$ . 먼저 규범정보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2를 통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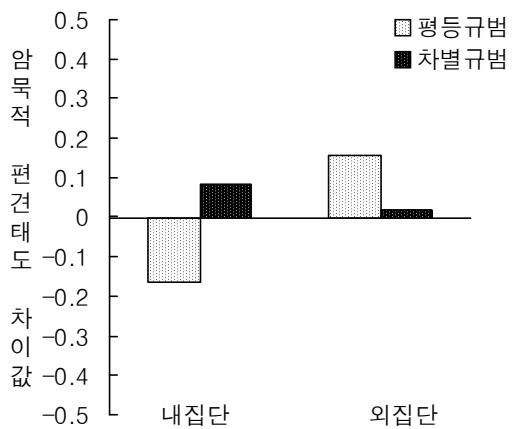


그림 2. 규범정보와 집단에 따른 암묵적 성 편견태도 변화량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집단조건에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F(1, 122) = 5.24, p < .05$ . 즉 내집단-평등규범조건에서 'IAT 효과' 점수  $D$ 의 차이값이 평균  $-0.16 (SD = .45)$ 이었는데 비해서, 내집단-차별규범조건에서는 평균  $0.08 (SD = .37)$ 로 나타났다. 즉 내집단의 평등규범 상황을 접한 피험자들이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에 비해 더 낮은 암묵적 편견태도를 보인 반면에 내집단의 차별규범 상황을 접한 피험자들은 더 높은 암묵적 편견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 주효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집단 조건에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122) = 1.61, ns$ .

이는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에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외현적 편견태도와 마찬가지로 암묵적 편견태도에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게다가 평등규범조건에서 내집단과 외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F(1, 122) = 8.90, p < .01$ , 이 결과를 보면 내집단-평등규범조건에서 피험자들의 'IAT 효과' 점수  $D$ 가 평균  $-0.16 (SD = .45)$ 으로 낮아졌고, 외집단-평등규범조건에서는 평균  $.15 (SD = .38)$ 로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내집단의 평등규범상황을 접한 피험자들이 암묵적 성 편견태도에서의 억제를 보인 반면에 외집단의 평등규범상황을 접한 피험자들은 오히려 높은 암묵적 성 편견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차별규범 조건에서 내집단과 외집단간의 차이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122) = 0.33, ns$ .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와 집단(내/외집단)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집단과 달리 다수의 내집단 성원이 평등적인 표현을 하거나 차별적 표현을 하는 규범적 상황을 접하였을 때 이러한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자동적 수준의 암묵적 편견반응에까지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IAT 효과

가 두 가지 범주와 특성간의 자동적 연합강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내집단 규범정보에의 노출이 여성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 자동적 암묵적 편견태도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부정적 특성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 암묵적 편견태도를 억제시키는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본 연구의 가설2 즉, “외집단에서와는 달리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의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더 낮은 암묵적 편견태도를 보일 것이다.”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과 성(남성/여성)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 피험자들의 경우 차별규범조건과 평등규범조건간에 암묵적 편견태도 변화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122) = 3.94, p < .05$ .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 피험자들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여성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규범상황을 접한 남성 피험자들은 후속적인 암묵적인 연합과제에서 ‘IAT 효과’ 점수  $D$ 가 통제집단에 비해 평균 .15( $SD = .46$ )로 높아졌고, 다수가 평등적인 태도를 보이는 규범상황을 접한 남성 피험자들은 ‘IAT 효과’ 점수  $D$ 가 통제집단에 비해 평균 -.07( $SD = .45$ )로 낮아졌다. 한편 차별규범조건에서 남성과 여성간에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 경향성을 보였다,  $F(1, 122) = 3.33, p < .10$ . 즉 차별조건에서 남성 피험자들은 ‘IAT 효과’ 점수  $D$ 가 평균 .15( $SD = .46$ )이었고, 여성 피험자들은 평균 -.05( $SD = .43$ )이였다.

#### 외현 및 암묵적 성 편견태도에 대한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 및 규범적 태도 지각의 매개효과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집단과 달리 내집단의 규범정보가 외현적 성 편견 태도와 암묵적 성 편견 태도에 통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내·외집단의 규범정보가 어떤 매개과정을 거쳐 외현 및 암묵적 성 편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Crandall 등(2002)에 따르면 다수의 합의적 태도 표명을 접하였을 때, 편견표현에 대한 허용규범의 지각변화를 통해 편견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다수의 합의적 태도표명을 접하였을 때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수의 합의적 태도 자체가 평등적인지 차별적인지에 관한 지각, 즉 ‘집단이 가진 태도규범 지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편견태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변인 분석 방법인 중다회귀매개분석(multiple regression mediation analysis)을 적용하여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과 ‘규범적 태도지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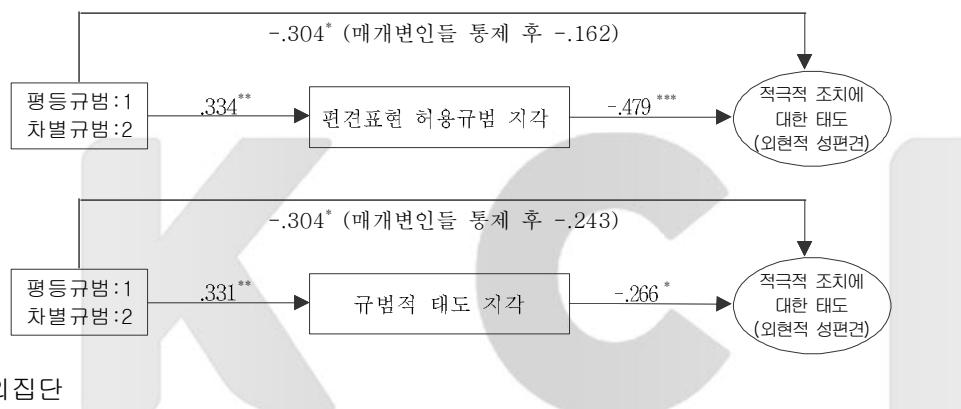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변인(mediator)이 예언변인과 종속변인 사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번의 회귀분석을 해야 한다. 먼저 (1) 예언변인(predictor)이 매개변인에 대해 유의한 예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또한 예언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하고, (3) 예언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1)의 예언변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혹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어야 한다(고재홍·지영단, 2002; Kenny, 2003). 이 때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예언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변인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본다.

**외현적 성 편견태도 변화량에 대한 매개효과분석.** 중다회귀매개분석에서 예언변인(predictor)은 ‘내·외집단의 규범정보’로 하였고, 매개변인(mediator)은 ‘편견표현 허용규범에 대한 지각’, ‘규범적 태도지각’이었으며, 종속변인은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였다. 매개변인들 중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 등 4개의 문항을 통해 알아보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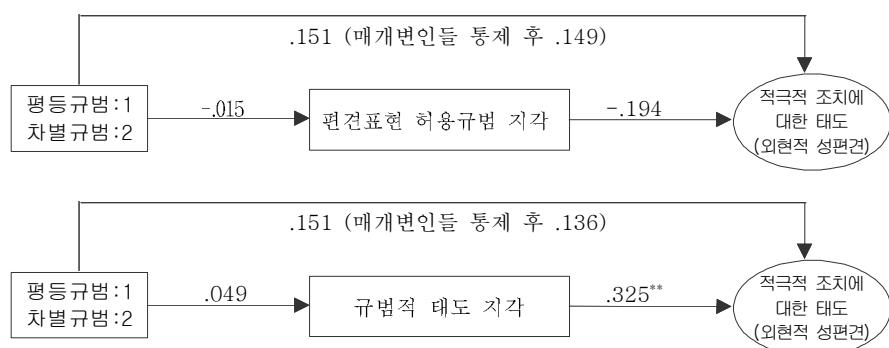
이들 중 역 문항은 변환과정을 거쳐 각 피험자별로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 점수를 얻었다(Cronbach의  $\alpha = .51$ ). 또 다른 매개변인인 규범적 태도지각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에 대해 가지는 편견의 정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의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였다. 이들 각 점수에서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를 뺀 차이값을 지각변화량으로 삼아 중다회귀매개분석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여기서 지각변화량 즉, 차이값이 클수록 편견표현 허용규범과 규범적 태도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인인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 역시 앞서의 매개변인들과 마찬가지로 통제집단의 남녀 평균점수를 뺀 차이값이었으며, 매개효과를 집단별로 구체화 시켜 알아보기 위해 내집단과 외집단을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그림3에 제시하였다. 그림3에 제시한  $\beta$  값은 모두 표준화된 계수이다.

#### 내집단



#### 외집단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3. 중다회귀매개분석을 통한 규범정보와 외현적 성 편견태도간의 매개효과

그림3에 제시된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 규범적 태도지각에 대해 Sobel(1982)의 공식1을 적용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의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2.34, p < .05$ . 그리고 내집단의 규범적 태도지각의 매개효과는 유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Z = -1.70, p < .10$ .

우선 Sobel의 유의성 검증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예언변인인 규범정보는 매개변인인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34, p < .01$ . 이는 규범정보가 차별적일수록 편견표현에 대한 허용규범 지각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매개변인인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은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의 변화량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beta = -.479, p < .001$ . 이것은 편견표현 허용에 대한 규범지각이 증가할수록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인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규범정보는 종속변인인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의 변화량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beta = -.304, p < .05$ , 매개변인 통제 후에는 예언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지 않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62, ns$ . 즉 규범정보가 차별적일수록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인 쪽으로 변화량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편견표현 허용에 대한 규범지각의 매개효과를 제거하고 나면 규범정보가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 변화량을 유의하지 않게 예언하였다. 이 결과는 예언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매개변인의 통제 후에는 예언량이 0에 가깝게 감소하여야 한다는 Baron과 Kenny(1986)의 기준과 완전한 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일치를 보여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규범적 태도지각의 경우, 내집단의 규범정보가 차별적일수록 피험자들은 집단의 편견적인 태도규범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beta = .331, p < .01$ , 또한 피험자들은 이러한 태도규범을 높게 지각할수록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비호의적인 쪽으로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beta = -.266, p < .05$ . 그리고 규범정보는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 변화량을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나,  $\beta = -.304, p < .05$ , 편견적 '규범적 태도지각'의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는 예언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지 않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43, ns$ . 비록 예언 감소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긴 하지만 이 결과는 Sobel의 유의성 검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집단의 규범적 태도지각' 또한 규범정보와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를 매개효과는 외집단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 성 편견태도 변화량에 대한 매개효과분석.** 앞서 외현적 성 편견태도에 관한 매개효과분석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 '규범적 태도지각'을 매개변인으로 삼았을 때 이들이 예언변인인 규범정보와 종속변인인 암묵적 성 편견태도간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토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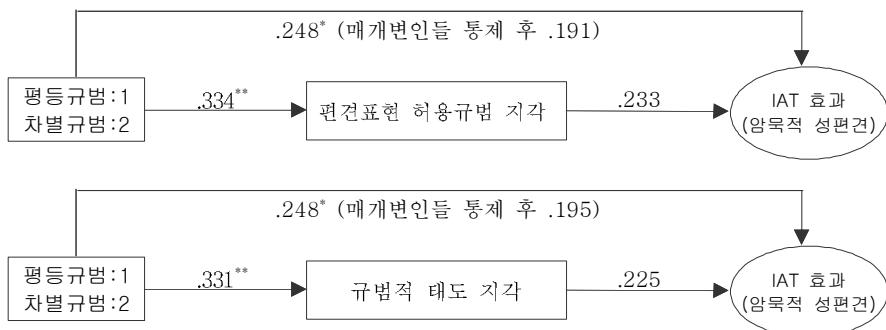
중다회귀매개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4와 같다.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매개변인 중에 기준에

- 1) Sobel(1982)의 공식: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매개효과가 0보다 큰지를  $Z$ -검증을 통해 알아보는 공식이다. 회귀분석에서 예언변인과 종속변인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_1, b_2$ 와 표준오차  $Se_1, Se_2$ 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매개효과 검증은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사용하였다(Preacher,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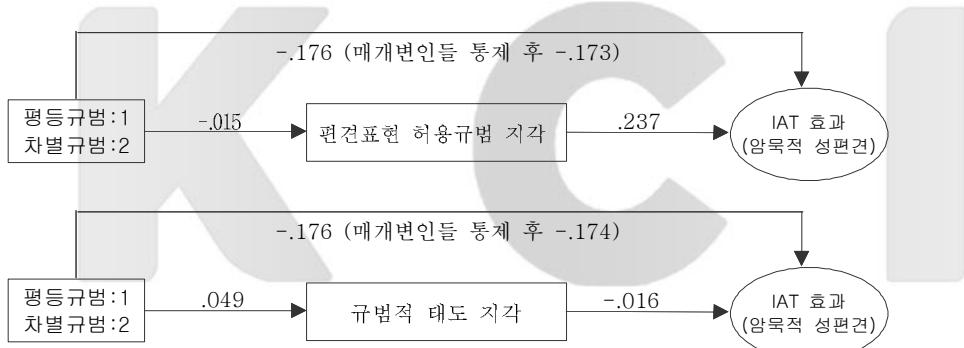
$$Z = \frac{b_1 \times b_2}{\sqrt{b_1^2 \times Se_1^2 + b_2^2 \times Se_2^2}}$$

부합되는 매개효과를 것은 나타낸 것은 없었다. Sobel 검증방법에 의한 매개효과를 검토해 본 결과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에서,  $Z = 1.63$ ,  $p < .10$ , 그리고 ‘규범적 태도지각’에서,  $Z = 1.52$ ,  $p < .13$ ,으로 유의 경향성을 보였을 뿐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 내집단



#### 외집단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4. 중다회귀매개분석을 통한 규범정보와 암묵적 성 편견태도간의 매개효과

그러나 매개변인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살펴보면, 우선 내집단에서 예언변인인 규범정보가 암묵적 편견태도의 변화를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48$ ,  $p < .05$ . 이는 내집단 규범정보가 차별 지향적일수록 암묵적 편견태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집단에서 매개변인인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과 ‘규범적 태도지각’은 암묵적 편견태도 변화를 유의미할 정도의 예언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beta = .233$ ,  $p < .10$ , 그리고  $\beta = .225$ ,  $p < .10$ 을 나타냈다 즉,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이 높을수록 암묵적 편견태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규범적 태도지각 역시 높을수록 암묵적 편견태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앞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외현적 성 편견태도에서 나타난 매개효과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규범정보의 통제적 기능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외현적

성 편견태도와 암묵적 성 편견태도에 대해 매우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며, 이러한 통제적 기능은 편견 표현의 허용규범 지각과 편견 태도규범 지각의 매개과정을 통해서 편견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 한다.

지금까지의 외현적 성 편견태도와 암묵적 성 편견태도에 대한 중다회귀매개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은 외집단과는 달리 내집단에서의 규범정보와 외현적 성 편견태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는 편견표현 허용에 대한 지각의 변화가 내집단과 외집단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각 변화가 내집단에서만 나타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기대와 일치한다. 또한 내집단의 규범적 태도 지각이 규범정보와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즉 외현적 성 편견태도를 매개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이는 지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매개변인 역시 규범정보와 외현적 성 편견태도 사이를 매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경향은 암묵적 성 편견태도에서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과 규범적 태도지각의 매개효과가 유의수준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 2: 영·호남 지역편견에 대한 규범정보의 통제적 영향

연구2의 목적은 내·외집단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성 편견에 관해 일어진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영·호남 지역 편견태도에 대해서도 일반화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연구2에서도 웹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하여 규범정보와 내·외집단을 조작하였고, 이 게시판을 읽은 피험자들의 지역 편견적 태도가 외현적으로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도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내·외집단 규범정보에 따른 통제적 영향의 매개과정을 알아 볼 목적으로 영·호남 지역편견에 대한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 규범적 태도지각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라는 점에서 영·호남 지역편견을 다루었다. 그러나 실험 절차상의 제약으로 인해 영남 지역에 소재 하는 대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방법

연구2의 방법과 절차 역시 연구1과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방법과 절차를 대부분 따랐으며, 여기서는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피험자

경북대학교에서 재학 중이며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 118명을 5개 조건에 무선할당 하였다. 피험자의 성별분포는 남자 59명 여자 59명이었다. 피험자들은 실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수업과제의 일부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30명은 통제집단으로 남자 15명 여자 15명이었다.

#### 실험설계

5개 조건 중 1개 조건(30명 남녀 각 15명)은 독립변인의 처치 없이 외현적 지역편견태도에 관한 지필 종속측정치와 암묵적 연합 과제(IAT)만을 측정하는 통제집단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조건은 2(규범정보: 평등규범/차별규범) × 2(집단: 내집단/외집단)의 완전무선설계로 독립변인의 처치가 이루지는 실험집단이었다. 실험집단의 남녀 구성은 남자 44명, 여자 44명으로 이루어졌다.

### 독립변인

독립변인의 조작은 실험을 위해 제작된 웹 사이트인 <http://won172.bysus.net>의 게시판 B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험자가 보게될 웹 사이트의 명칭, 게시된 글 내용과 제목 그리고 지역 상징어를 사용한 게시자 이름을 통하여 ‘평등/차별’의 규범정보와 ‘내/외’ 집단을 조작하였다.

**내·외집단의 조작** : 지역에 대한 내·외집단 조작은 피험자가 보게 될 첫 화면에서 여러 개의 링크된 가상의 웹 사이트 명칭(예컨대, 전남대 E 동아리, 경북대 C 동아리)과 두 번째 화면에서 보게될 게시판에서 게시자가 지역 상징어(예컨대, 부안 총각, 달구벌 등)로 자신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내집단 조작은 피험자가 모두 경북대 학생이었으므로 경북대에 있는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읽는 형식이었고, 글을 올린 6명의 게시자를 중 다수(5명, 83%)가 영남 지역의 상징어를 사용하고 소수(1명, 17%)가 호남지역의 상징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반면 외집단 조작은 전남대에 있는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읽고, 글을 올린 게시자의 다수(5명, 83%)가 호남 지역의 상징어를 사용하였고, 소수(1명, 17%)가 영남 지역의 상징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규범정보의 조작** : 규범정보는 평등규범 조건과 차별규범 조건으로 하였다. 규범정보의 조작은 피험자가 읽게 될 게시판에 올려진 글 내용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평등규범 조건은 게시판에 올려 진 6개의 글 내용 중 다수(5개, 83%)가 본적지 기입제도 폐지, 호남지역의 개발 소외, 인사 불평등 해소 등 지역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에 찬성하는 태도를 표명하고 소수(1개, 83%)는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읽는 경우이다. 차별규범 조건은 6개의 글 내용 중 다수(5개, 83%)가 지역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에 반대 태도를 표명하고 소수(1개, 17%)가 이러한 조치들에 찬성하는 글 내용을 읽는 경우이다.

통제집단, 통제집단은 웹 사이트의 게시판을 읽지 않고 실험집단의 종속변인과 유사한 질문지에 응답하고 곧이어 암묵적 연합과제(IAT)를 실시하는 조건이다.

### 종속변인

종속측정치는 연구1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외현적 지역편견 태도로서 게시판 하단에 링크시켜 둔 ‘질문지 작성’ 버튼을 눌러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암묵적 지역편견 태도로서 암묵적 연합검사 실시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IAT 효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실험집단의 내·외집단 및 규범정보의 처치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험집단에서 얻는 외현적 태도 점수와 IAT 효과 점수를 통제집단에서 얻은 외현적 태도와 IAT 효과 점수를 각각 뺀 차이값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외현적 태도**. 외현적 태도는 지역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에 대한 태도문항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지역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는 “국가적 시책에서 호남지역이 여전히 소외 받고 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호남 출신자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본적지 기입제도 폐지에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의 형식으로 이외에도, ‘영남지역편중을 막기 위한 공무원 지역할당제 도입’, ‘고위공직자에 호남출신자에 대한 배려’, ‘경제개발에서의 호남지역 푸대접’, ‘서해안 개발을 위한 국책사업’ 등 6개 문항에 대해 ‘①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에서 ⑤ 매우 찬성한다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폐개변인.** 규범정보와 외현 및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를 폐개하는 변인으로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과 규범적 태도지각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첫째, 편견표현 허용규범의 지각은 지역 내에서 편견적 표현이 얼마나 용인되고 허용되는지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는 질문들로써 “우리 지역 사람들 내에서는 호남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견적 태도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지역 사람들 내에서는 호남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발언하는 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한다.”의 두 문항으로 ‘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⑤ 매우 그렇다’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둘째, 규범적 태도지각은 지역 내의 사람들이 호남지역에 대해 가진 편견정도를 어느 정도로 지각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이 호남지역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편견정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를 ‘① 전혀 편견적이지 않은 것 같다’에서 ‘⑤ 매우 편견적인 것 같다’에 대해 5점 척도 상에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작확인.** 조작확인은 게시판을 통한 규범정보 및 내·외집단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이었다. 내·외집단 조작확인은 호남출신 사람이 쓴 글의 수가 몇 개였는지, 영남출신 사람이 쓴 글의 수가 몇 개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규범정보의 조작 확인을 위해서 호남지역을 지지하는 글의 수가 몇 개였는지, 영남지역을 지지하는 글의 수가 몇 개였는지를 물었다

**암묵적 태도.** 암묵적 태도는 연구1과 마찬가지로 ‘IAT 효과’를 측정하였고, 개선된 IAT 효과 계산규칙을 적용하여  $D$  점수를 얻었다. 여기서 IAT 효과 점수  $D$  값이 클수록 호남지역 범주와 부정적 특성이 더 잘 연합되었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영남 지역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다거나 또는 호남지역에 대해 높은 편견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 실험절차

연구2에서 사용한 실험도구는 연구1과 동일하다. 실험절차에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피험자들이 실험용 웹 사이트(<http://won172.byus.net>)의 B형을 선택하면 흰색 바탕화면에 6개 대학 명칭이 붙여져 있는 가상의 동아리 홈페이지를 링크시킨 형식으로 화면의 중앙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 동아리 홈페이지의 게시판들은 내·외집단과 규범정보를 조작하기 위해 지역 상징어로 게시자를 나타내고 글 내용을 조건별로 달리한 것들이었다.

피험자들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게시판에 포함된 글 목록과 내용을 순서대로 읽고 목록 하단에 위치한 ‘질문지 작성’ 버튼을 눌러 인터넷 사용경험, 게시판 운영에 관한 의견을 비롯한 게시판 글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함께 외현적 태도의 종속측정치들에 응답하였다.

외현적 태도의 측정이 끝난 후 실험자는 별개의 실험이 있는 듯이 피험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실험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피험자들은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직접 눌러 지역 IAT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자신의 학번과 성명을 입력한 다음 프로그램의 지시문을 천천히 읽어보고 화면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따라 IAT 과제를 수행하였다.

지역 IAT 실행 프로그램도 역시 7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고(표1 참조), 표적 자극의 제시방식과 오반응의 기록 등의 제반 절차는 실험에서 사용한 성 편견 IAT 프로그램의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연구2에서는 표적변별과제로 영·호남의 지명들을 사용하였고, 특성변별과제에서 사용한 단어도 연구1과 달리 하였다. 표적변별과제에서 사용한 지명들을 먼저 살펴보면, 호남지역으로 “광주, 전주, 목포, 남원, 여수, 나주, 군산, 완도, 순천, 해남” 10개 지명이었으며, 영남지역으로 “부산, 대구, 경주, 포항, 구미, 울산, 마산, 안동, 상주, 김천” 10개 지명을 사용하였다. 특성변별과제에서 사용한 각 10개의 긍정 또는 부정의미 단어들을 살펴보면, 긍정의미 단어는 “행복, 믿음, 희망, 사랑, 감사, 축복, 용기, 기쁨, 평화, 생명”이었고, 부정의미 단어는 “저주, 지옥, 폭력, 불신, 불행, 전쟁, 악마, 비겁, 질병, 절망”이었다. 이들 표적범주의 지명과 특성범주의 단어들은 나은영과 권준모(2002)의 연구에서 대표성과 친숙도를 고려하여 선정된 것들을 인용한 것이며, 이 중 영남지역 지명의 일부는 대구 경북 출신이 대다수인 피험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 결과 및 논의

결과분석은 외현적 편견태도와 암묵적 편견태도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내·외집단에서의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외현적 태도뿐만 아니라 자동적 암묵적 태도에까지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주관심사이기 때문에 조작화인 분석 이후, 분석자료로 사용한 종속측정치들은 실험집단의 개인별 평균값에서 통제집단의 평균값을 뺀 차이값을 모든 분석의 원자료로 삼았다.

### 조작화인 분석

규범정보의 조작화인을 위해 먼저 ‘호남지역을 지지하는 글의 수’에 대한 판단을 분석하였다. ‘호남지역을 지지하는 글의 수’에 대한 판단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2(규범정보 평등규범 차별규범) × 2(집단 내집단 외집단)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9에 제시하였다.

표 9. 규범정보, 집단의 조건별 지각된 ‘호남지지 글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등규범	차별규범
내집단	3.81(1.12) n=21	1.41(.80) n=22
외집단	4.70(.93) n=23	2.14(1.25) n=22
전체	4.27(1.11) n=44	1.77(1.10) n=44

변량분석의 결과, 규범정보에서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4) = 126.12, p < .001$ . 평등규범조건에서 평균 4.27( $SD = 1.11$ )개로 판단하였고, 차별규범조건에서는 평균 1.77( $SD = 1.10$ )개로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피험자들에게 평등규범과 차별규범의 조작이 유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집단

에서도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F(1, 84) = 13.35, p < .001$ , 규범정보와 집단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84) = .13, ns$ .

그리고 내·외집단 조작확인을 위해 피험자들에게 호남출신 사람이 올린 글의 수와 영남출신 사람이 올린 글의 수를 판단하게 하는 질문을 하였다. 여기서는 '호남출신 사람이 올린 글의 수에 대한 판단만을 분석하였다. 호남출신 사람이 올린 글의 수에 대한 판단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2(규범정보: 평등규범, 차별규범)  $\times$  2(집단: 내집단, 외집단)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별 지각된 '호남출신이 쓴 글의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10에 제시하였다.

표 10. 규범정보, 집단의 조건별 지각된 '호남출신이 쓴 글의 수'의 평균(표준편차)

	평등 규범	차별 규범
내집단	1.76(.77)	1.45(.67)
외집단	4.70(.70)	3.59(1.30)
전체	3.30(1.65)	2.52(1.49)

변량분석결과에 의하면, 집단(내집단/외집단)에서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4) = 175.88, p < .001$ . 즉 내집단조건의 피험자들은 호남사람이 올린 글의 수를 평균 1.60( $SD = .73$ )으로 판단하였고, 외집단조건의 피험자들은 평균 4.16( $SD = 1.15$ )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험자들에게 내·외집단 조작이 의도대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의 주효과 외에도 규범정보에서의 주효과,  $F(1, 84) = 13.64, p < .001$ , 그리고 집단(내집단/외집단)과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4) = 4.35, p < .05$ . 먼저 규범정보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평등규범에서 피험자들은 호남출신이 올린 글의 수를 평균 3.30( $SD = 1.65$ )으로 판단하였고 차별규범에서의 피험자들은 평균 2.52( $SD = 1.48$ )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집단과 규범정보간의 상호작용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만을 살펴보면 외집단 조건에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F(1, 84) = 16.71, p < .001$ , 외집단-평등규범조건의 피험자들이 호남출신이 올린 글의 수를 평균 4.70( $SD = .70$ )으로 판단하였는데 비해 외집단-차별규범조건의 피험자들은 평균 3.59( $SD = 1.30$ )로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다수의 호남출신 사람이 호남지역에 대해 차별적인 주장을 표명하는 외집단-차별규범조건의 글을 읽은 피험자들이 게시자의 출신지역을 왜곡되게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서 이점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1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작확인이 불충분하였을 가능성에 따라 규범정보와 내·외집단 조작이 실제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이나 규범적 태도지각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보충분석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별 지역 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과 규범적 태도 지각 점수에서 통제집단의 평균값을 각각 뺀 차이값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2(집단: 내집단, 외집단)  $\times$  2(규범정보: 평등규범, 차별규범)의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규범적 태도 지각의 변화에 대해서는 주효과와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경우,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에서 주효과가 유의하였

다,  $F(1, 84) = 4.11, p < .05$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별규범조건에서의 피험자들이 지역 내 편견표현 허용규범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와 집단(내집단/외집단)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4) = 4.76, p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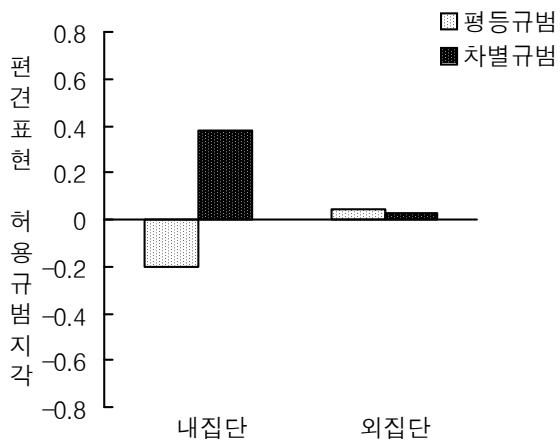


그림5. 규범정보와 집단에 따른 편견표현 허용규범의 지각 변화

지역 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 변화량에 있어서 규범정보와 집단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집단 조건에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F(1, 84) = 8.85, p < .01$ . 즉 내집단-평등규범 조건의 피험자들은 편견표현을 덜 허용적인 규범으로 지각하였고 ( $M = -.20, SD = .58$ ), 내집단-차별규범조건의 피험자들은 편견표현이 더 허용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M = .38, SD = .66$ ). 그리고 차별규범조건에서 내집단과 외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한 경향을 나타냈다  $F(1, 84) = 3.33, p < .10$ . 그러나 평등규범에서 내·외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F(1, 84) = 1.59, ns$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외집단의 경우 역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1, 84) = .01, ns$ .

#### 지역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외현적 편견태도의 차이

외현적 지역편견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종속측정치로 국가시책에서의 호남지역 소외, 본적지 기입제도 폐지, 고위공직에 대한 지역배려, 공무원 지역할당제 도입, 서해안 국책사업 등에 대한 찬성정도를 평균하였다(Cronbach의  $\alpha = .64$ ). 이 평균값이 높을수록 호남지역을 위한 적극적 조치(이하, 적극적 조치라 함)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조건별 편견적 태도의 차이점수를 얻기 위해 남녀 통제집단의 태도 점수를 먼저 구하였다. 남녀 통제집단에 대해서 얻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11과 같았다.

표 11. 적극적 조치에 대한 외현적 편견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피험자의 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남성	2.82	.55	15
여성	2.94	.51	15
전체	2.88	.52	30

적극적 조치에 대한 외현적 편견태도에 대해서 통제집단의 남성과 여성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남녀 통제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t(28) = -.63, ns$ . 즉,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에 있어서 통제집단의 남녀간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변인을 제외한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와 집단(내집단/외집단) 변인만을 분석하였다.

실험집단의 피험자들로부터 적극적 조치에 대한 개인별 편견태도 점수를 구한 다음,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를 뺀 차이값을 분석의 원자료로 삼았다. 따라서 0보다 큰 값은 통제집단에 비해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인 쪽으로의 변화하였음을 의미하고 0보다 작은 값은 통제집단에 비해 비호의적인 쪽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차이값을 이용하여 2(규범정보: 평등규범, 차별규범)  $\times$  2(집단: 내집단, 외집단)의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에 따른 조건별 편견태도 차이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2와 같다.

표 12. 규범정보, 집단에 따른 '지역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외현적 편견태도 변화량의 평균(표준편차)

	평등규범	차별규범
내집단	.47(.46) <i>n</i> =21	-.17(.57) <i>n</i> =22
외집단	.31(.31) <i>n</i> =23	.13(.53) <i>n</i> =22
전체	.39(.40) <i>n</i> =44	-.02(.56) <i>n</i> =44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범정보조건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1, 84) = 16.29, p < .001$ , 규범정보과 집단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84) = 4.41, p < .05$ . 먼저 규범정보의 주효과 부분을 살펴보면 평등규범 조건의 피험자들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 차이값이 평균 .39( $SD = .40$ )이었던데 비해 차별규범 조건의 피험자들은 평균 -.02( $SD = .56$ )를 나타냈다. 이는 평등규범조건의 피험자들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의 억제를 시사하는 것이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와 집단(내/외집단)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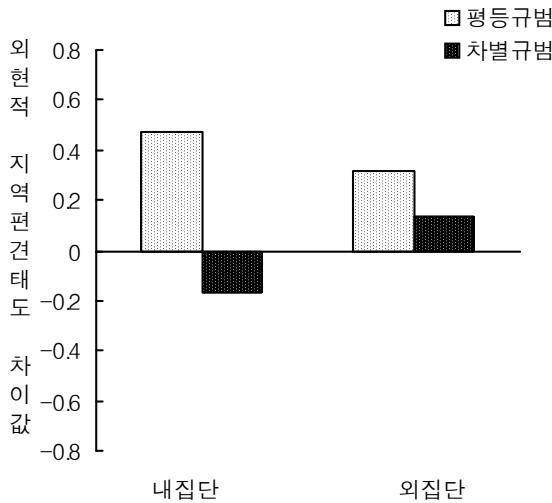


그림 6. 규범정보, 집단에 따른 '지역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외현적 지역편견태도의 변화량

그림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내집단조건에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F(1, 84) = 19.79, p < .001$ . 즉, 내집단조건의 경우 평등규범 상황에서는 적극적 조치들에 대한 태도 차이값이 평균 .50( $SD = .45$ )이었고, 차별규범상황에서는 평균 -.17( $SD = .57$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내집단의 평등규범 조건에서는 적극적 조치들에 대해 호의적인 쪽으로의 태도를 나타낸 반면에 내집단의 차별규범 상황에서는 비호의적인 쪽으로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외집단조건의 경우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에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84) = 1.59, ns$ . 규범정보에 따른 차이가 외집단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유의하지 않았고 내집단조건의 피험자들에게서만 유의한 이러한 결과는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연구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내집단조건의 피험자들에게서의 규범의 통제적 영향은 평등규범 상황이나 차별규범 상황에 따라 외현적 지역편견을 억제하는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외현적 지역편견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1 “외집단과는 달리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의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더 낮은 외현적 편견태도(지역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를 지지하는 것이다.

#### 영·호남 지역에 대한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초자료는 피험자 당 140개의 반응시간을 토대로 하였다. 연구1의 방법과 절차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에 관한 종속측정치는 Greenwald 등 (2003)이 제안 한 'IAT 효과'의 개선된 계산규칙을 적용하여 구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피험자별 'IAT 효과' 점수인  $D$  값을 통제집단의 남녀 별 평균  $D$  값으로 뺀 차이값을 분석자료로 삼았다.

**통제집단의 IAT 효과.** 우선 남녀 각 15명으로 이루어진 통제집단에 대한 자료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여기서 개인별 IAT 효과 점수  $D$  값을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로 보았다. 표13은  $D$  값으로 환산된 IAT 효과 점수의 남녀별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표 13. 남녀 통제집단의 IAT 효과 평균과 표준편차( $D$ -점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남성	.70	.45	15
여성	.67	.48	15
전체	.69	.46	30

남성 통제집단과 여성 통제집단간의 IAT 효과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비교한 결과, 남녀 통제집단간의 IAT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28) = .16, p < .001$ . 따라서 앞서 외현적 태도 측정치들과 마찬가지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성별변인을 배제하고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과 집단(내집단/외집단)만을 분석하였다.

**실험집단의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 변화량 분석.** 먼저 실험집단의 IAT 효과인 피험자별  $D$  점수에서 통제집단의 평균  $D$  점수로 뺀 차이값으로써 이것을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 변화량으로 삼았다.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 차이값에 대한 분석에서 0보다 큰 점수는 통제집단에 비해 비호의적인 쪽으로의 편견태도를 나타냈음을 의미하고 0보다 작은 점수는 편견태도가 억제되었음을 의미한다.

암묵적 편견태도 차이값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규범정보: 평등규범, 차별규범)  $\times$  2(집단: 내집단, 외집단)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 차이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집단 유형별로 제시해 보면 표14와 같다.

표 14. 규범정보, 집단의 조건별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 변화량의 평균, 표준편차( $D$ -점수)

	평등규범	차별규범
내집단	-.16(.41) <i>n</i> =21	.10(.23) <i>n</i> =22
외집단	.11(.30) <i>n</i> =23	.05(.37) <i>n</i> =22
전체	-.02(.38) <i>n</i> =44	.08(.28) <i>n</i> =44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규범정보의 주효과  $F(1, 84) = 2.27, ns$ , 외집단의 주효과  $F(1, 84) = 2.66, ns$ , 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규범정보(평등규범/차별규범)와 집단(내집단/외집단) 간의 상호 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84) = 5.32, p < .05$ . 규범정보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7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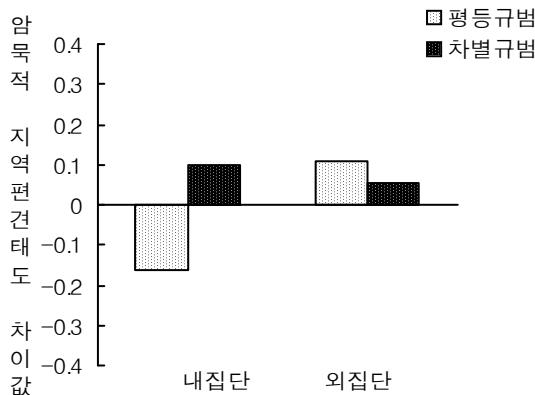


그림 7. 규범정보, 집단에 따른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 변화량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주효과 분석결과 내집단조건에서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1, 84) = 7.22, p < .01$ . 구체적으로 내집단-평등규범조건에서 암묵적 지역편견태도 차이값이 평균  $-.16 (SD = .41)$ 이었던 반면 내집단-차별규범조건에서는 평균  $.10 (SD = .23)$ 이었다. 이는 다수의 내집단 사람들이 평등을 표명하는 조건에 노출된 피험자들이 통제집단 피험자들에 비해 더 낮은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를 보인 반면에 내집단의 차별규범 상황을 접한 피험자들은 더 높은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외집단의 경우 평등규범과 차별규범간의 차이가 통제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84) = .29, ns$ . 이는 본 연구의 가설2 즉, “외집단에서와는 달리 내집단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의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더 낮은 암묵적 편견태도를 보일 것이다.”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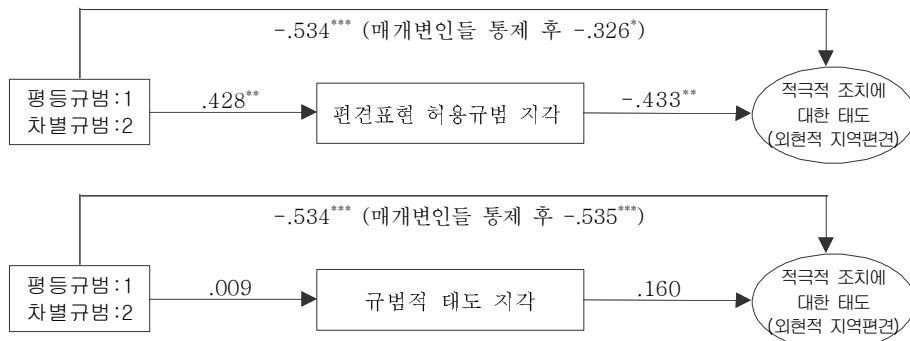
이 결과는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시켜 주는 것이며, 내집단 규범의 영향이 외현적 편견태도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암묵적 편견태도에서의 변화와도 관련되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 외현 및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에 대한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 및 규범적 태도 지각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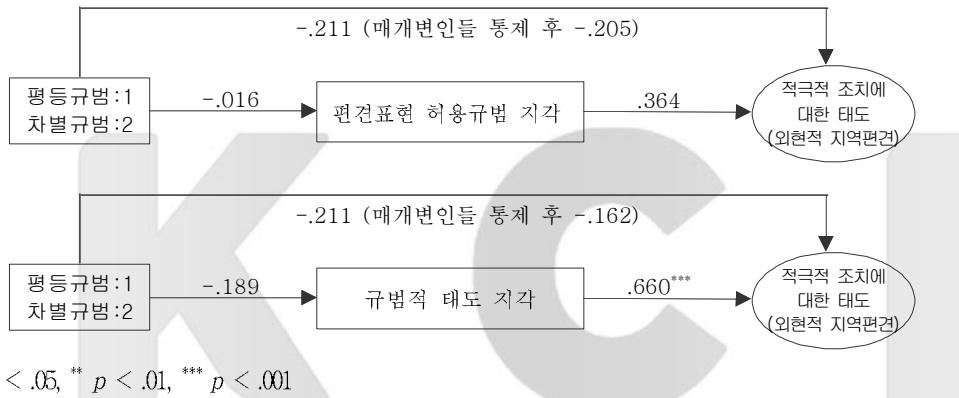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현 및 암묵적 성 편견태도에 관한 연구1에서와 마찬가지로 외집단과 달리 내집단의 규범정보가 적극조치에 대한 외현 및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에 통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1과 마찬가지로 내·외집단의 규범정보와 외현 및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간의 지역 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과 태도규범 지각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 변화량에 대한 매개효과분석.** 분석은 연구1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 규범정보를 예언변인으로, 지역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변화량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지역 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과 ‘지역 내 규범적 태도 지각’의 매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그림8은 이들 매개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매개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내집단



## 외집단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8. 중다회귀매개분석을 통한 규범정보와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간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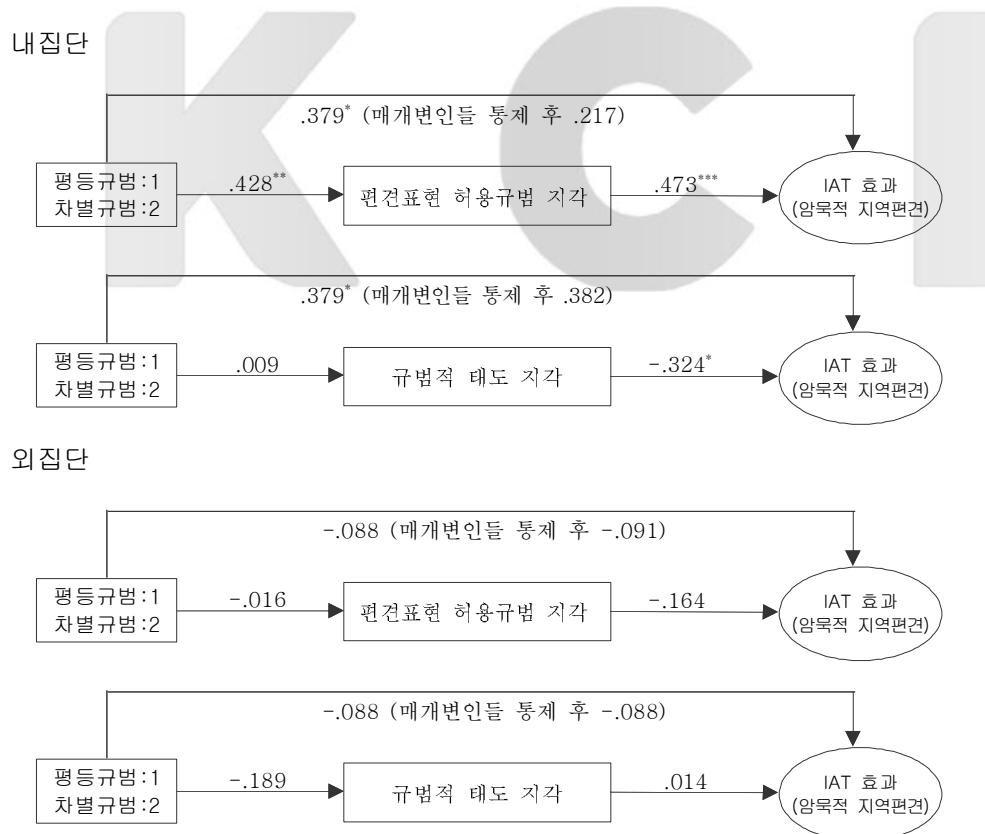
중다회귀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집단의 경우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에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기준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매개효과 정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 Sobel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2.16$ ,  $p < .05$ . 반면에 내집단의 '규범적 태도지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집단의 매개변인들 역시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낸 지역 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에 대해 구체적 살펴보면 첫째, 내집단 규범정보는 매개변인인 '지역 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beta = .428$ ,  $p < .01$ . 즉 내집단 규범이 차별적일수록 지역 내 편견표현 허용규범을 높게 지각하였다. 둘째, 지역 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beta = -.433$ ,  $p < .01$ . 셋째, 내집단에서 예언변인인 규범정보가 적극적 조치에 대한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의 변화를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beta = -.534$ ,  $p < .001$ ,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매개효과를 제거하고 나면 규범정보가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에 대한 예언 정도를 상당히 감소시켰다,  $\beta = -.326$ ,  $p < .05$ . 이 결과는 완전 매개효과를 반영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이 규범정보와 외현적 편견태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변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결과는 영·호남 지역편견에 있어서도 연구1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험자들이 내집단 성원들 다수가 지역 평등적 주장이나 차별적 주장을 표명하는 규범 상황을 접하였을 때, '편견표현 허용 규범 지각'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고, 이러한 지각 변화가 외현적 지역편견 태도를 촉진시키는 쪽으로도 혹은 억제시키는 쪽으로도 매개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규범정보와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으나 이는 지지되지 않았다.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 변화량에 대한 매개효과분석.**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에 관한 매개효과분석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 '규범적 태도지각'을 매개변인으로 삼았을 때, 중다회귀매개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9와 같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한 기준에 비교적 부합되는 매개변인은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이었다. 이에 대해 Sobel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2.27$ ,  $p < .05$ . 한편 관심을 두었던 지역 내 '규범적 태도지각'은 내집단에서 규범정보와 암묵적 지역편견태도 간의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집단에서의 매개변인들 역시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9. 중다회귀매개분석을 통한 규범정보와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간의 매개효과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난 매개변인인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내집단의 예언변인인 규범정보가 지역 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beta = .428, p < .01$ . 이것은 내집단 규범정보가 차별 지향적일수록 자기 지역 사람들이 편견표현을 더 많이 허용하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매개변인인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은 종속변인인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의 차이값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beta = .473, p < .001$ . 즉 자기 지역 사람들이 편견표현을 더 많이 허용하는 것으로 지각할수록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예언변인인 내집단의 규범정보는 종속변인인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를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beta = .379, p < .05$ , 매개변인의 효과를 제거한 후에는 예언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지 않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17, ns$ . 제시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매개변인의 효과를 제거한 후 예언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 정도가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역 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은 규범정보와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 사이를 매개 기능성을 시사하는 본 연구의 기대와 일치한다.

###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성 편견(연구1)이나 지역편견(연구2)에서 사회적 규범 특히 내집단의 규범이 갖는 통제적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내·외집단의 평등 지향적 규범과 차별 지향적 규범 정보를 조작하였고, 이것이 외현 및 암묵적 편견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했다. 아울러 이러한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외현적 편견 태도와 암묵적 편견 반응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과 규범적 태도지각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연구1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내집단 성 평등규범 접한 사람들은 내집단 성 차별규범 정보를 접한 사람들보다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즉, 더 낮은 외현적 성 편견태도를 보임으로써 가설1이 지지되었다. 둘째, 내집단 성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들은 내집단 성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들보다 더 낮은 암묵적 성 편견반응(성 편견 IAT 효과)을 보임으로써 가설2가 지지되었다. 셋째, 내집단에서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이 규범정보와 외현적 편견태도(성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그러나 내집단에서 규범적 태도지각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기대와는 달리 유의경향만을 나타냈다. 넷째, 규범정보와 암묵적 성 편견태도간의 ‘편견표현 허용규범지각’과 ‘규범적 태도지각’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 경향성만을 나타냄으로써 본 연구의 기대를 약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2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내집단 지역 평등규범 접한 사람은 내집단 지역 차별규범 정보를 접한 사람보다 지역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즉, 더 낮은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를 보임으로써 가설1이 지지되었다. 둘째, 내집단 지역 평등규범을 접한 사람은 내집단 지역 차별규범을 접한 사람보다 더 낮은 암묵적 지역 편견반응(성 편견 IAT 효과)을 보임으로써 가설2가 지지되었다. 셋째, 내집단에서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이 규범정보와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지역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매개함으로써 본 연구의 기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집단에서 규범적 태도지각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현적 지역 편견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이 내집단 규범정보와 암묵적 지역 편견태도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적 태도지각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외집단 규범정보와는 달리 내집단 규범정보의 통제적 영향이 성 편견과 지역 편견에서 매우 강하고 일관성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연구1과 2에서 모두 외현적으로는 암묵적으로는 내집단 규범이 평등 지향적일 때는 편견이 억제되었고 차별적일 때는 편견이 촉진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를 다시 한 번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적 태도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편견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밝힌 Blanchard 등(1991), Sechrist 등(2001), Wittenbrink 등(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비록 본 연구와 같이 외집단의 규범적 영향을 함께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관련성이 높은 내집단(자기 대학)에 의한 규범정보가 자기 관련성이 낮은 집단(타 대학)의 규범정보보다 편견태도의 변화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한 Stangor 등(200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인종 문제와 같이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는 다수집단의 규범적 영향을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남녀문제나 영호남 지역과 같이 어느 한쪽의 우월성을 말하기 어려운 집단의 규범적 영향에 관심을 가졌다. 즉, 기존 연구가 비교적 규범체계가 잘 정립된 사회에서는 전체 사회규범의 역할이 명백하게 지각될 수 있겠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체사회규범과 내집단규범간의 규범적 영향의 괴리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연구1과 2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편견의 해소와 억제에 있어 전체 사회가 갖는 탈 편견적 규범도 중요한 요인인지만 그 사회를 이루는 하위집단들이 내부적으로 편견표현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별개의 편견적 규범이 작용한다면 이러한 사회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탈 편견적 태도를 취하겠지만 실제로는 편견적 태도를 고스란히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편견과 고정관념의 유지 혹은 해소라는 차원에서 각 하위 집단들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합의적 규범들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AT과제를 이용한 내현적 편견반응의 측정을 통해 내·외집단 규범정보의 통제적 영향이 암묵적 편견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IAT과제는 실제 태도와 표현된 행동 간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현한 간접적인 태도측정 방법이다(Greenwald, 1998). 특히 이 측정방법은 자동적 연합강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면서 실제 태도를 보다 잘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암묵적 편견반응에서의 변화는 규범의 통제적 영향에 따른 진정한 태도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비록 본 연구가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한 태도변화를 검토한 결과가 아니므로 일반화의 한계는 있을지라도 IAT 절차가 비반응적인 측정치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은 단순한 응종이나 동조에 의한 변화가 아닌 실제 태도의 변화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Stangor 등(2001)은 규범정보 제시에 의한 태도변화가 1주일 이후에까지도 지속되었으며, 설득적 시도에도 높은 저항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더구나 내집단의 규범은 그들 성원으로 하여금 내집단과 일치하는 쪽으로의 태도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내집단 성원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영향을 준다고 한다(Martin, 1988). Newcomb(1963)은 대학시절 다른 대학생과 유사하게 정치적 신념을 바꾼 태도변화는 25년 후까지도 유지되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들에 비추어 본

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암묵적 편견태도 반응에서의 차이는 다른 사람의 태도표명에 따른 진정한 의미의 태도변화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과 규범적 태도 지각의 변화를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매개과정을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성편견과 지역편견을 각각 다룬 연구1과 2에서 편견표현 규범 지각의 매개효과는 비록 암묵적 성편견 태도변화에서 경향성만을 보이긴 하였지만 규범정보와 외현 및 암묵적 편견태도 변화 사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매개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반면에 또 다른 매개변인인 ‘규범적 태도 지각’은 외현 및 암묵적 성 편견태도의 변화에 대해서만 약하게나마 매개 경향성을 보였을 뿐 지역 편견태도에 있어서는 외현적으로는 암묵적으로는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우선 이 결과는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이 외현 및 암묵적 편견태도의 변화에 대해 규범적 태도 지각보다 더 안정적으로 예언해 주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수의 합의적 규범이 편견표현을 허용하는 규범 지각을 변화시켜 태도변화를 일으킨다는 Crandall 등(2002)의 가정을 지지해 주고 있다. 즉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그 사회에서 편견표현이 허용된다고 지각할 때에는 편견반응이 높게 나타나지만 편견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범으로 지각될 때는 편견반응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내집단 규범이냐 외집단 규범이냐에 따라 편견표현 허용 규범지각의 매개효과가 편견태도의 변화에 다르게 작용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서 Crandall 등(2002)의 가정은 전체 사회의 규범과 하위 내·외집단의 규범으로 좀 더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규범적 태도지각의 매개효과가 성 편견 연구을 다룬 연구1에서는 외현 및 암묵적 편견태도 변화를 약하게나마 매개 경향성을 보였지만 지역 편견 연구를 다룬 연구2에서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규범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집단을 통한 편견태도 표현을 직접 조작하였고, 규범 자체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데 기인할 수 있다. 안상수와 김혜숙(200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규범 자체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태도표명을 피험자가 직접 파악하게 하는 상황으로 편견표현 규범을 조작하였다. 이와 같이 편견표현 규범을 조작하는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험자가 ‘편견표현이 얼마나 허용적인지에 대한 지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집단이 어느 정도의 합의적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규범적 태도 지각’의 변화도 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중 하나의 지각변화만 선택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조작확인을 위한 보충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경우, 연구1과 2에서 모두 규범 정보와 집단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이에 반해서 규범적 태도 지각의 경우, 성 편견을 다룬 연구1에서는 규범정보와 내·외집단 조작에 따른 상호작용이 유의 경향성을 보인데 비해 지역 편견을 다룬 연구2에서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곧 연구1의 경우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뿐만 아니라 약하나마 규범적 태도 지각의 변화도 같이 일어났음을 시사하고, 연구2에서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변화만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뿐만 아니라 약하게나마 규범적 태도지각 변화도 어느 정도 나타나 외현 및 암묵적 편견태도 변화에 대한 유의한 매개효과나 매개 경향을 보였고, 연구2에서는 편견표현 허용규범 지각의 변화만 일어나 외현 및 암묵적 편견태도 변화에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지만 규범적 태도 지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현 및 암묵적 편견태도 변화에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규범적 태도 지각의 변화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에 따른 대안적 해석들도 가능한 데, 그

중 하나는 외현적 편견태도의 변화와 암묵적 편견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들 두 가지 매개변인이 상이한 매개과정을 거치거나 선택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본 연구에서 '규범적 태도 지각'에 대한 측정이 하나의 문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측정의 불안정성이나 피험자의 실제 지각을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하나의 문항이지만 집단의 합의적 편견정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전형적 문항을 사용하였고, 조작확인을 위한 보충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문항이 성편견과 지역편견에서 다르게 평정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지역 편견과 성 편견태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영남지역의 피험자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호남지역 피험자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대학생만을 대상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험구성 상의 제약으로 규범의 영향에 따른 태도변화를 다루는 데 있어 일정 기간에 걸친 사전과 사후측정이 없어 통제집단과의 차이만으로 태도변화를 기술하였기 때문에 그 변화의 지속성에 대한 직접적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규범 정보와 내·외집단 조작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다수가 평등적이거나 차별적인 태도를 표명하는 글을 읽도록 하여 조작하였다. 이를 위해 주장의 질이나 강도를 조건별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전 평정을 통해 글의 길이, 제목, 내용 등을 조정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조건별로 동질적으로 유지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연구1에서 '다수의 여성의 여성 차별적 주장을 하는 글'을 읽는 조건과 연구2에서 '다수의 호남인이 호남 차별적 주장을 하는 글'을 읽는 조건의 경우 내·외집단 지각의 혼동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내집단 규범정보에 따른 암묵적 태도반응에서 태도변화의 지속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IAT 효과' 점수가 문화적으로 자주 접하여 형성된 연합의 강도를 반영할 뿐 개인의 실제적 평가적 행동을 그 다지 잘 예측하지 못하며, 외현적 태도측정들과도 상관이 낮다는 지적들 (Karpinski & Hilton, 2001; Olson & Fazio, 2004)에 따라 점화과제와 같은 다양한 암묵적 태도 측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Kim & Ahn, 2004). 그리고 내집단에의 동일시 정도나 동질성에 따른 규범정보의 통제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규범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집단의 합의적 규범정보를 피이드백 형식으로 제시하던 것과는 달리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규범정보를 조작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실험 참여자가 수동적으로 실험자가 제시하는 규범정보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실험 참여자 직접 게시판의 글을 통해 규범정보를 파악하고 이것이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실험실의 인위적 통제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터넷이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소수집단들이 출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여과 없이 표출됨으로써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 사이트라든지 엽기 사이트, 안티 사이트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인터넷에서 제시된 규범의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표현규범의 통제적 기능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점점 커질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재홍·지영단(2002).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잘못된 강간통념 수용간의 매개변인과 조정변인의 역할. *청소년 상담연구*, 10, 87-105.
- 나은영(1995). 여론정보에 의한 태도변화: 대학생 내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2), 69-83.
- 나은영·권준모(2002).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사투리 음성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51-74.
- 안상수·김혜숙(2003). 내·외집단 규범정보가 양성평등정책 및 내현적 성편견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51-75.
- 홍영오·이훈구(2001).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편견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85-204.
- Asch, S. E. (1952). *Social psychol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3.
- Blair, I. V., & Banaji, M.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 Blanchard, F. A., Crandall, C. S., Brigham, J. C., & Vaughan, L. A. (1994). Condemning and condoning racism: A social context approach to interracial sett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 993-997.
- Blanchard, F. A., Lilly, T., & Vaughan, L. A. (1991). Reducing the expression of racial prejudice. *Psychological Science*, 2, 101-105.
- Cook, S. W. (1984). Cooperative interaction in multiethnic contexts. In N. Miller & M. B. Brewer (Eds.), *Groups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pp. 155-18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randall, C. S., Eshleman, A., & O'Brien, L. O. (2002). Social norms and the expression and suppression of prejudice: The struggle for intern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359-378.
- Devine, J.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Devine, P. G. (2001). Implicit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757-759.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aertner, S. L., & Dovidio, J. E.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F. Dovidio & S. L.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 61-89). New York: Academic Press.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 3-25.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197-216.
- Haslam, S. A., Oakes, P. J., McGarty, C., Turner, J. C., Reynolds, K. J., & Eggins, R. A. (1996). Stereotyping and social influence: The mediation of stereotype applicability and sharedness by the view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 369-397.
- Inquisit 1.33 [Computer software]. (2003). Seattle, WA: Millisecond Software. <http://www.millisecond.com/v1/download.aspx>에서 2003. 11. 17. 인출
- Karpinski, A., & Hilton, J. (2001). Attitudes and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774-788.
- Kawakami, K., Dovidio, J. F., Moll, J., Hermsen, S., & Russin, A. (2000). Just say no(to stereotyping): Effects of training in the negation of stereotypic association on stereotype ac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871-888.
- Kelman, H. C. (1961). Processes of opinion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25, 57-78.
- Kenny, D. A. (2003. 2. 5). *Mediation*. <http://users.rcn.com/dakenny/mediate.htm>에서 2004. 10. 21. 인출
- Kim, H. S., & Ahn, S. S., (2004, August). The effects of ingroup and outgroup norms on the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 an affirmative action policy for women. In H. S. Kim(Chair), *Social psychology*, Symposium conducted at meeting of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Beijing, China.
- Lowery, B. S., Hardin, C. D., & Sinclair, S. (2001). Social influence effects on automatic racial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842-855.
- Martin, R. (1988). Ingroup and outgroup minorities: Differential impact upon public and private respons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39-52.
- McConahay, J. B. (1986). Modern racism, ambivalence, and the modern racism scale. In J. F. Dovidio & S. L.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 91-125). New York: Academic Press.

- Newcomb, T. M. (1943). Personality and social change: Attitude formation in a student community. New York: Dryden.
- Nosek, B. A., Banaji, M. R., & Greenwald, A. G. (2002). Math = male, me = female, therefore math ≠ 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44-59.
- Olson, M. A., & Fazio, R. H. (2004). Reducing the influence of extrapersonal association 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Personalizing the I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653-667.
- Preacher, K. J. (2003. 9. 21). Calculation for the Sobel Test: An interactive calculation tool for mediation tests. <http://www.unc.edu/~preacher/sobel/sobel.htm>에서 2004. 10. 21 인출
- Sears, D. O. (1988). Symbolic racism. In P. A. Katz & D. A. Taylor (Eds.) *Eliminating racism: Profiles in controversy* (pp. 53-84). New York: Plenum Press.
- Sechrist, G. B., & Stangor, C. (2001). Perceived consensus influences intergroup behavior and stereotype acces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645-654.
- Sechrist, G. B., & Stangor, C. (2002). Stereotypes and prejudice as social norms. In C. S. Crandall & M. Schaller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Historical perspectives*. Seattle, WA: Lewinian Press.
- Sherif, M. (1936). *The psychology of social norms*. New York: Harper.
- Sherif, M., & Sherif, C. W. (1953). *Group in harmony and tension*. New York: Harper.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tangor, C., Sechrist, G. B., & Jost, J. T. (2001). Changing racial beliefs by providing consensus info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486-496.
- Stephan, W. G., & Stephan, C. W. (1984). The role of ignorance in intergroup relations. In N. Miller & M. B. Brewer (Eds.), *Groups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pp. 229-25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IL: Nelson-Hall.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New York: Blakwell.
- Wittenbrink, B., & Henly, J. R. (1996). Creating social reality: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 and content of stereotypic belief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598-610.

# **Perceived in-group and out-group norm influences explicit and implicit prejudice: In the sexism and the regional prejudice.**

**Sang-Su Ahn**

**Hai-Sook Kim**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Ajou Univ. Dept. of Psychology Ajou Univ.

**Mi-Young Ahn**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Ajou Univ.

Two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test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of the in-outgroup norms on the sexism(Exp.1) and the regional prejudice(Exp.2). Norms(equal norm advocating the affirmative action for women or Honam people /unequal norm advocating the opposit of the affirmative action for women or Honam people) and the group(ingroup/outgroup) of the participants were manipulated on the internet boards.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explicit attitude regarding affirmation action policy and the IAT effect. In Exp.1 (N=160) and Exp.2 (N=118), Participants in the ingroup-equal norm condition showed more favorable attitude regarding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than those in the ingroup-unequal norm condition.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AT effects suggested that male participants in the ingroup-equal norm condition showed significantly less implicit prejudice than those in the ingroup-unequal norm condition.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mediation analysis, the information of group norm of the ingroup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outgroup affected the explicit attitudes through the mediation process in which the exposure to the ingroup norm changes the perception of people's tolerance of prejudice expression. However, this mediation effect was found for the implicit attitude measure in the regional prejudice, but not in the sexism. The theoretical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words:** norm, prejudice, in-outgroup, sexism, affirmative action, implicit attitude, IAT